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의학석사 학위논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김 태 현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휴먼시스템의학과 의학교육학전공
김 태 현

김태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의사는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몰라도 괜찮을까? 의사들은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개인-직업인-의료시스템의 구성원'이라는 다양한 층위에서 환자를 매개로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지만, 그 상호작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은 한 개인으로서 건실한 의료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환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료 시스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또 미래의 독립된 의사로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초 상식이다.

미래의 의사로 활동하게 될 의과대학생과 수련을 받고 독립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전공의들의 경제·금융 문해력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관련하여 기본의학교육 및 졸업후의학교육에서 제공되는 경제·금융 교육의 부족함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당사자인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은 경제·금융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본의학교육이나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였던 사례가 드물게 있지만, 해당 교육과정들은 교육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개발되었다기보다는 몇몇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수행되었던 사례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에 대한 연구조차 마땅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교육학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개발하고 실제로 교육을 수행한 뒤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타당화, 최종안 도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수행, 평가의 총 6 단계

로 진행되었다. 각 단계별로 문헌 검색, 홈페이지 검색, 설문, 표적집단토의법, 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을 통해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를 타당화할 수 있었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의 두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으며,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이에 더해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추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모두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세 가지 도달역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의 5개 세부주제를 대상으로 파일럿 강의를 수행하였다. 강의는 VOD로 촬영하여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설문을 통해 본 교육과정에 대한 보통 이상의 흥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의 변화, 그리고 보통 이상의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적집단토의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와 더불어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강의들에 대한 전공의들의 더 높은 흥미도를 예상

하였고 이는 평가 설문에서 근소하지만 높은 흥미도와 전반적으로 더 높은 조회수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강의들이 필수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 뒤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장시켜 각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여 건실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높이고,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진로 선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 및 여타의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후속 연구로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전체를 완성시키기 위해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타당화하고 평가하는 연구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서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의를 보완하는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요어 : 경제·금융 문해력, 경제·금융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평가, 의과대학생, 전공의

학 번 : 2021-29535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 2
제 3 절 연구의 의의 ····· 2
제 4 절 용어의 정의 ····· 3
1. 경제·금융 문해력 ····· 3
2. 경제·금융 교육 ····· 4
3. 의과대학생 ····· 5
4. 전공의 ·····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 ····· 7
1. 경제·금융 문해력의 역사 ····· 7
1) 경제·금융 문해력 개념의 등장 배경 ····· 7
2.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적 모형 ····· 8
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 8
2)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 9
3. 경제·금융 문해력의 측정 ····· 10
1)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역사 ····· 10
2)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방법 ····· 11

제 2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현황 ····· 13
1. 일반 시민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 13
2.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 16
1)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 16
2)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 17
3)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 18
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 18
제 3 절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20
1. 시민교육의 개념 ····· 20
2. 시민교육의 현황 ····· 20
3. 시민교육의 필요성 ····· 21
4. 시민교육의 스펙트럼과 다층위적 성격 ····· 22
1) 협의의 시민교육과 광의의 시민교육의 차이 ····· 22
2) 광의의 시민교육이 갖는 다층위적 성격 ····· 24
5.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 ····· 25
6. 의학교육 관점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적용 ····· 25
제 4 절 의학교육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 27
1. 의사 개인의 삶과 경제·금융 문해력 ····· 27
1) 경제·금융 문해력에 따른 부채행동 ····· 27
2) 부채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 ····· 27
3) 부채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재무적 안녕 ····· 28
2. 의사의 직업전문성에서 경제·금융 지식 ····· 29
3. 시스템 의학에서 가치기반 의료와 경제·금융 지식 ····· 30
4. 의사의 진로 및 사회적 역할에서 경제·금융 지식 ····· 31

제 3 장 연구방법 ····· 33
제 1 절 연구설계 ····· 33
1.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 35
1) 문헌 검색 ····· 35
2) 홈페이지 검색 ····· 35
3) 자료 분석 ····· 35
2.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 38
1) 타당화 설문 ····· 38
2) 타당화 FGD ····· 39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 39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 39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 39
6.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 40
1) 평가 설문 ····· 40
2) 평가 FGD ····· 40

제 4 장 연구결과 ····· 42
제 1 절 사례연구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 42
1. 사례연구 결과 ····· 42
1) 국내 교육과정 분석 ····· 42
2) 해외 교육과정 분석 ····· 45
3) 의학교육 내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분석 ····· 47
2. 사례연구를 통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 도출 ····· 50
제 2 절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 53

1. 설문을 통한 교육과정 타당화 ····· 53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 53
2)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 53
3)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 55
4)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개설형태 ····· 57
2.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 59
제 3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 65
1.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상세 ····· 65
2.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방안 ····· 69
제 4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 71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기획 ····· 71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강의계획 상세 ····· 71
제 5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 73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촬영 및 배포 ····· 73
제 6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 75
1. 설문을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 75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 75
2) 평가 설문 결과 상세 ····· 75
2. FGD를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 78

제 5 장 고찰 및 결론 ····· 87
제 1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계획안 및 평가 ····· 87

1. 사례연구 결과 ····· 88
2.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 89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 91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 91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 92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94

참고문헌 ····· 95
부록 ····· 110
Abstract ····· 153

표 목 차

[표 2-1] 2004년 HRS 및 2009년 NFCS 설문 문항 ····· 12
[표 4-1] 국내 교육과정(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주제 분석 ····· 44
[표 4-2] 해외 교육과정(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세부주제 분석 ···· 46
[표 4-3]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 48
[표 4-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 49
[표 4-5]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 54
[표 4-6]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 55
[표 4-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 61
[표 4-8]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주제 탐색 결과 ····· 64
[표 4-9]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별 조회수 ····· 74
[표 4-1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 ····· 76
[표 4-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 80
[표 4-1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주제 탐색 결과 ····· 86

그 림 목 차

[그림 2-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 8
[그림 2-2]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 9
[그림 2-3] Potrich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 10
[그림 2-4]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문항별 정답자 비율 ····· 15
[그림 2-5]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세대별 4개 이상 정답자 비율 ····· 15
[그림 2-6] C3 프레임워크의 발달 단계별 달성 목표 예시 ····· 21
[그림 2-7]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스펙트럼 ····· 23
[그림 2-8] 시민교육의 다양한 층위 ····· 24
[그림 2-9] 가치 공식 ····· 30
[그림 3-1]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 모형 ····· 33
[그림 3-2] 연구의 절차와 방법 ····· 34
[그림 3-3]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 ····· 37
[그림 4-1]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세부주제 및 교육목표 ····· 51
[그림 4-2]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도달역량 ····· 52
[그림 4-3] 경제·금융 교육과정 대상학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 58
[그림 4-4]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시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 58
[그림 4-5]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형식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 59
[그림 4-6]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 66
[그림 4-7]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 69
[그림 4-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지식변화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 ····· 7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경제·금융 문해력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장단기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적절한 경제·금융 문해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Lin et al., 2019; Remund, 2010). 이러한 현상에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역시 예외는 아니며(Ahmad et al., 2017; Jayakumar et al., 2017), 이는 전체적으로 낮은 성인의 경제·금융 문해력이라는 기저 효과에 더해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에서 적절한 경제·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Persad et al., 2008; Sharma & Rojek, 2020).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는 미래에 독립적인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교육 및 수련을 받는 존재로서(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2023b), 이들에게 경제·금융 문해력이 갖는 의미는 다른 직업군의 피교육자보다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낮은 경제·금융 문해력은 부채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의과대학생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Lusardi & Tufano, 2015; Phillips et al., 2010, 2014). 또한 의료인의 훼손된 재무적 안녕은 의료인의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Rohlfing et al., 2014).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제·금융 문해력은 의사의 직업전문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으로서 작용하며, 가치기반 의료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Baker, 2001; Relman, 1998). 또한 의사가 맡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의 경제·금융 지식이 요구된다(Falcone & Satiani, 2008).

제 2 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방식으로 경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 및 평가를 진행하여 향후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경제·금융 교육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한가?

연구문제 2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가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 :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5 : 개발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냈는가?

연구문제 6 : 개발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학습을 유도하였는가?

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제 교육과정을 운영 및 평가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과 표적집단토의법(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을 통해 의학교육 분야에서 흔히 다루어지지 않는 경제·금융 교육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평생의학교육

을 포함한 여타 분야의 경제·금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경제·금융 교육프로그램을 토대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에서 경제·금융 교육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 4 절 용어의 정의

1. 경제·금융 문해력

금융 문해력은 한 개인이 핵심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정 및 논리적인 장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며, 2000년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금융 문해력 및 교육 위원회를 명명하면서부터 사용된 단어이다(Remund,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금융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한 연구가 여럿 있었고, 금융 문해력의 조작적 정의에는 예산편성, 저축, 대출, 투자가 가장 흔히 포함되며 이는 모두 행동 또는 능력에 기반한다(Chen & Volpe, 2002;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08). 현재, 금융 문해력을 측정하기 위해 상기한 조작적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측정 설문이 개발되어 있으나, 설문 사이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설문 중 표준으로 채택된 특정 설문이 있지는 아니하다(Chen & Volpe, 2002; Lusardi & Mitchelli, 2007). 한편 경제 문해력은 금융 문해력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Lo Prete, 2018), 금융 문해력을 통해 개인과 소비자로서 내리는 합리적인 결정이 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고 정책입안자를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인 의미를 추가적으로 내포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Frederic S Mishkin, 2008; Jappelli, 2010). 이와 같은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금융 문해력의 정의를 따르되 경제 문해력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 문해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 경제·금융 문해력은 '한 개인이 경제와 금융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정 및 논리적인 장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하며, 개인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사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경제·금융 교육

경제와 금융에 관한 교육은 정부, 중앙은행, 시민단체, 금융관련 공공기관, 사기업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고유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교육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금융 교육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세 층위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와 금융에 관해 문해력 또는 지식을 증진하고 이해와 의사결정 능력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다른 경제학적 주체들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자신감과 권리에 대한 인식 및 협상, 그리고 경제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가치와 태도 및 경제학적 추론과 판단능력,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가르치는 교육(Gnan, Silgoner, & Weber, 2007). 본 연구에서는 경제·금융 교육을 위의 세 층위를 모두 포함하는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3. 의과대학생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되기 위하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의과대학생은 일반적으로 의예과 소속으로 2년 동안 기초학문을 수학하고, 의예과를 마친 뒤 의학과에 진급하여 4년동안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을 수학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거나, 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만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의사가 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지난 10년간 의사국가시험의 합격률의 분포는 92.8%에서 95.7%로, 대다수의 응시생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과대학생은 의사가 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3).

4. 전공의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레지던트는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3b). 우리나라에서는 의과대학 졸업생 수와 매년 확보되는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의 수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거의 모든 의과대학

생이 기본의학교육 이후 전공의 수련을 밟는다고 할 수 있다(Choe, 2006; J. J. Kim, 2011).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

1. 경제·금융 문해력의 역사

1) 경제·금융 문해력 개념의 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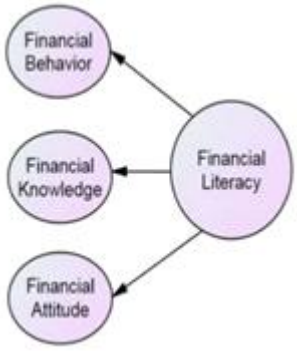
경제·금융 문해력은 학문적으로는 한 개인이 핵심 금융 개념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상황과 일생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단기 결정 및 논리적인 장기 금융 계획을 통해 개인의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되며, 정책 분야에서는 '일생의 재무적 안녕을 위해 금융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라는 말로 정의되고 있다(Remund, 2010).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문헌 기록은 비록 '자산 관리 이해력'과 같이 다른 형태를 띄고 있지만 1900년대 초반부터 확인된다(Jelley, 1958). 하지만 공식적으로 금융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2000년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금융 문해력 및 교육 위원회를 명명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학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2006년 당시 미국의 감소하는 저축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금융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는 정부 정책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교육실에 의해 우선적으로 수행된다. 이후 2009년에 와서야 금융 문해력을 위한 국가적 전략에 금융 문해력의 정의가 포함되기에 이른다.

2. 경제·금융 문해력의 개념적 모형

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경제·금융 문해력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다양한 설명 모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의 하나는 OCED의 모형이다. 이 모델은 경제·금융 문해력의 주요 요소로 꼽히는 경제·금융 행동, 경제·금융 지식, 경제·금융 태도의 종합적인 측정이 곧 경제·금융 문해력을 의미한다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모형은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Potrich et al., 2016)

[그림 2-1]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경제·금융 행동, 경제·금융 지식, 경제·금융 태도가 문해력을 구성한다는 개념적 모형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되었으며(Agarwalla et al., 2015; Atkinson & Messy, 2012; OECD, 2012), Ciemleja et al.은 OECD의 모형과 Remund (2010)가 제시한 경제·금융 문해력의 다섯 가시 핵심 영역, 그리고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5)가 제시한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종합하여 [그림 2-2]와 같이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해당 모형에서는 투자, 저축-대출, 개인재무관리,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금융 서비스를 경제·금융 문해력의 구성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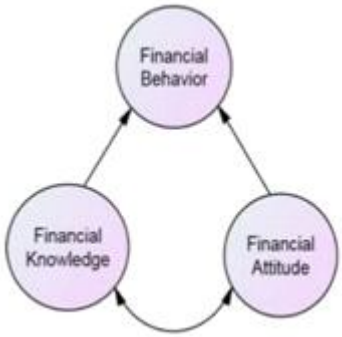
소로, 지식, 행동, 역량, 태도를 경제·금융 문해력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Ciemleja et al., 2014)

[그림 2-2]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2)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OECD 모형과 달리 경제·금융 지식을 경제·금융 문해력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경제·금융 지식과 태도는 경제·금융 행동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신용카드 사용 행동에 관한 Hayhoe et al. (2005)의 연구에서 개념이 제시되어 Potrich et al. (2016)에 의해 [그림 2-3]과 같이 발전하였다. Potrich et al. (2016)은 해당 연구에서 다양한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 대한 수렴타당도, 단일차원성 및 개념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2-3]의 모형이 가장 적절한 모형이라고 주장하였다.



(Potrich et al., 2016)

[그림 2-3] Potrich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

3. 경제·금융 문해력의 측정

1)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역사

경제·금융 문해력에 대한 측정은 이보다 이른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전미소비자연맹에서는 1990년부터 1~5년 주기로 소비자 지식 설문을 통해 소비자 금융, 은행 계좌, 보험, 주거 등의 소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한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997년 시작되었던 Jump$tart 설문은 2000년 이후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대학생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Hastings et al., 2013).

전세계적인 수준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경제협력개발기구-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이 있고, 이외에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Global Financial Literacy Excellence Center 설문이나 미시간 대학교

의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이하 HRS), 미국 금융산업 규제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이하 FINRA)의 설문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설문이 시행되고 있다.

2)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방법

경제·금융 문해력은 일반적으로 문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선다형 문항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나 옳게 답한 문항을 개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Hung et al., 2011).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항으로는 [표 2-1]에 제시된 3가지 문항이 있다. 이는 2004년 Lusardi와 Mitchell에 의해 시행되어 HRS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이며, 이는 2000년대의 경제·금융 문해력 측정의 표준처럼 사용되었다(Hastings et al., 2013). 해당 문항은 미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 독일, 칠레, 멕시코 등 여러 국가에서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사용되었던 바 있다. 이후 2009년 시행된 전미금융이해력연구조사(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이하 NFCS)에서 상기한 주요 3개 문항에 2개 문항을 추가하여 주요 5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표2-1] 2004년 HRS 및 2009년 NFCS 설문 문항

주제	질문	답가지
2004년 HRS 설문 문항		
이자율과 복리	예금 이자율이 연 2%일 때, 100달러를 5년간 예금한다면 5년 후 예상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	102달러 이상 정확히 102달러 102달러 미만 모름 거절
인플레이션	예금 이자율이 연 1%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연 2%일 때, 1년 후의 구매력은 현재와 비교하여 더 클지, 적을지 아니면 동일할지 선택하시오.	구매력이 현재보다 크다 구매력이 현재보다 작다 구매력이 현재와 동일하다 모름 거절
위험 분산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은 주식 펀드를 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참 거짓 모름 거절
2009년 HRS 설문 문항		
주택담보대출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오) 대출 기간이 15년인 경우, 대출 기간이 30년인 경우보다 월 상환 금액이 더 높지만 대출의 전체 이자는 적게 나온다.	참 거짓 모름 거절
채권가격설정	이자율이 오를 때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상승 하락 동일 서로 관계 없음 모름 거절

(Hastings et al., 2013)

제 2 절 경제·금융 문해력의 현황

1. 일반 시민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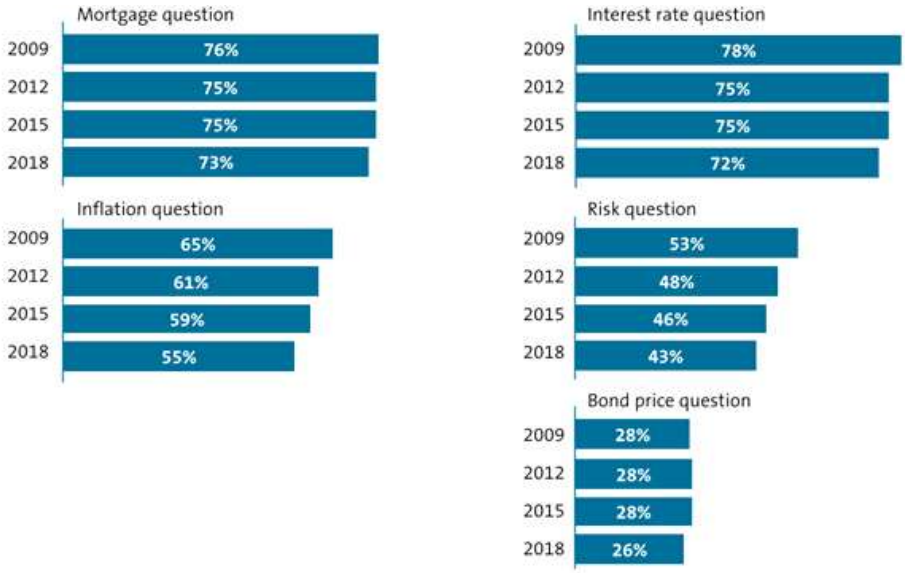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금융 문해율이 53%에서 81%로 확인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경제·금융 문해율이 48%에서 52%로 확인된다(Remund, 2010).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던 2009년 NFCS에서는 주요 3개 문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의 정답자 비율 78%, 2번 문항(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답자 비율 65%, 3번 문항(위험 분산)에 대한 정답자 비율 53%. 또한 3개 문항 모두 옳게 답한 사람은 39%에 해당하였다. 4번 문항(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76%였고, 5번 문항(채권가격설정)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28%였다(Lin et al., 2019).

학생과 젊은 성인은 일반적으로 경제·금융 문해력이 전체 성인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2012년에 NFCS 결과를 세대에 따라 Millenials (1978-1994 출생), Gen Xers (1963-1977 출생), Boomers (1946-1962 출생), Silent Generation (1945 이전 출생)의 4 세대로 나누었을 때, Millenials는 앞서 제시된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모든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한편 세대에 따라 경제·금융 교육의 기회 제공 여부와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을 때는 Millenials의 36%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혹은 직장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Millenials의 22%는 경제·금융 교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였다(Mottola, 2014).

보다 많은 경제·금융 교육 기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젊은 성인이 보이는 낮은 수준의 경제·금융 문해력은 2015년에 수행된 같은 설문에서도 재현되었던 바 있다. 해당 설문은 Millenials와 전체 설문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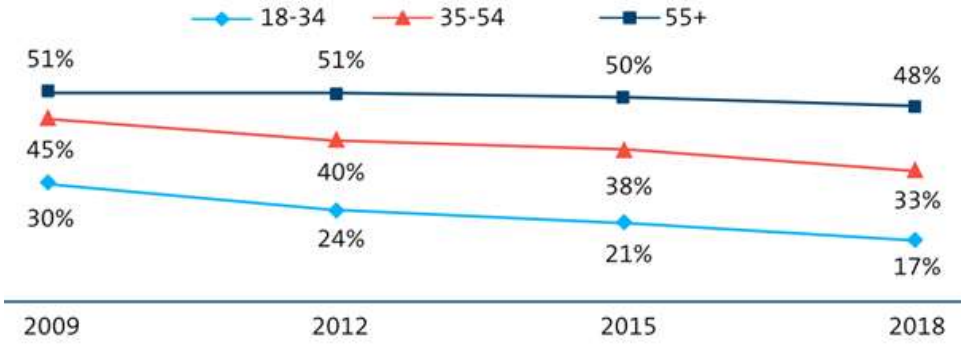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었는데, 주요 5개 문항에 대해 Millenials의 평균 정답 개수는 2.47개, 전체 대상자의 평균 정답 개수는 2.94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상금 마련이나 저축 등 단기적 경제 행동과 은퇴 계획 및 재무 설계 등 장기적 경제 행동에 관한 설문도 진행하였는데, 마찬가지로 Millenials는 전체 설문 대상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본인의 경제·금융 지식에 관해서 물어보았을 때는 양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K. T. Kim et al., 2019).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NFCS 조사 결과를 보면, 시간이 흐름이 따라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점차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4]와 같다. 모든 주요 5개 문항에 대해 직전 조사에 비해 정답률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2-5]와 같이 4개 이상의 정답을 맞힌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 경제·금융 문해력을 세대에 따라 도식화 해보았을 때, 55세 이상에서는 경제·금융 문해력을 갖춘 사람의 감소 추세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에서는 해당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n et al., 2019)

[그림 2-4]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문항별 정답자 비율



(Lin et al., 2019)

[그림 2-5]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세대별 4개 이상 정답자 비율

2.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의 경제·금융 문해력 현황

1)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일반적인 성인 인구집단과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모든 의학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설문연구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설문 문항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의과대학생들의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주제로는 자산의 종류에 따른 기대수익, 채권가격설정, 펀드의 비용, 자산배분, 위험 분산, 과세이연계좌, 인플레이션, 복리, 학자금 대출, 단리, 대출과 만기 등이 있었으며, 의학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의 전체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각각 44.6%와 50.3%이었고, 양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 포함된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 비율만을 보면,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의 정답자 비율 98%, 2번 문항(인플레이션) 86%, 3번 문항(위험 분산) 71%. 4번 문항(주택담보대출)에 94%, 5번 문항(채권가격설정) 19%였다. 의과대학생들은 주요 5개 문항에 대해서는 NFCS 결과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였지만, 해당 연구에 포함된 자산배분이나 위험분산, 화폐의 시간가치에 관해 다른 설문을 이용하여 물어본 결과에서는 여전히 10~40%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Jayakumar et al., 2017).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설문 정답률과 연관된 다양한 인자를 조사하였는데, 의학과 재학 중 제공받은 개인 재무 상담이나 정보는 경제·금융 문해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p=0.79$), MD/MBA 학위(OR=2.47, $p=0.02$), 금융 관련 학부 전공(OR 5.79, $p<0.05$), 자가보고 금융지식(OR 1.79, $p<0.01$), 개인 재무관리에 대한 자신감(OR 1.19, $p=0.05$)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학과 1학년 및 의학과 4학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가 없었고, 의학과 재학 중 제공받은 개인 재무 상담이나 정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과대학생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금융 문해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D/MBA나 금융 관련 학부 전공 등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학위과정의 이수 여부가 높은 오즈비로 나타난 것은 경제·금융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현행 의과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경제·금융 교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행된 의과대학 대상의 설문 연구에서, 응답한 59개의 의과대학 중 경제·금융과 관련된 과정을 운영 중인 학교는 66%(n=39)에 해당하였으며, 전체 학교의 경제·금융 관련 과정 평균 강의시간은 9.4시간(범위, 0.5~32시간)이었다. 경제·금융 관련된 과정의 강의는 주로 의학과 1학년과(평균, 5.0시간) 2학년에(평균, 3.1 시간) 걸쳐 이루어졌으며, 의학과 3학년과 4학년에 이루어진 시간은 각각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하였다(Persad et al., 2008). 교육내용 교수법, 그리고 교과과정 구성에 관해서도 의과대학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집중적으로 경제·금융 관련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취도가 약간 더 낫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Gray & Lorgelly, 2010).

의학교육 전반에 걸친 불충분한 경제·금융 교육은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오타와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설문 평가에서는, 71%의 의과대학생들이 현재의 의과대학 교과과정이 충분한 경제·금융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으며, 스스로 경제·금융 문해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28%에 지

나지 않았다. 또한 89%의 학생들은 경제·금융 관련 내용이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Whelan et al., 2021).

3)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연구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의과대학생의 경제·금융 문해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미국에 위치한 2개의 수련병원에서 전공의과 펠로우를 4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는, 앞서 Jayakumar et al. (2017)의 연구와 유사하게 널리 사용되는 설문 문항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전공의와 펠로우의 경제·금융 문해력을 측정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설문 정답률은 52%였으며, 주요 5개 문항에 대한 정답자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1번 문항(이자율과 복리) 96%, 2번 문항(인플레이션) 91%, 3번 문항(위험 분산) 87%. 4번 문항(주택담보대출)에 95%, 5번 문항(채권가격설정) 20%. 전공의와 펠로우는 의과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5개 문항에 대해서는 NFCS 결과보다 더 나은 수치를 보였지만, 해당 설문에 포함된 공매도, 지방채, 펀드의 수익률 등에 관한 문항에서는 여전히 10~20% 정도의 낮은 수준의 정답률을 보였다(Ahmad et al., 2017).

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 연구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에 관해서는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단일 전공과목의 레지던트를 상대로 한 설문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피부과 레지던트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한 설문연구에서는 레지던트 기간 중 금융교육을 제공받은 비율이 0.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Sharma & Rojek, 2020). 반면 미국의 방사선종양학과 레지던트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설문연구에서는 36.7%의 레지던트가 수련과정 중 금융교육을 제공받았다고 밝혔으며, 교육시간의 최빈값은 1~3시간(68%)이었다(Witek et al., 2014). 한편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금융교육을 후향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대부분의 레지던트들은 0~5시간의 교육만을 받았다고 답하였다(Sharma & Rojek, 2020). 또한 여러 연구에서 레지던트들에게 경제·금융 지식을 얻는 가장 주요한 경로를 물어보았을 때 가장 높은 비율(49~67%)을 차지한 경로는 자가학습이었다(Sharma & Rojek, 2020; Wang et al., 2021).

약 75%의 레지던트들은 경제·금융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70% 이상의 레지던트들은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에 경제·금융 교육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Sharma & Rojek, 2020; Wang et al., 2021; Witek et al., 2014). 레지던트 프로그램 책임자들에게 수행한 설문에서는 경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강의자를 찾는 것과 강의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선정되었다(Witek et al., 2014).

제 3 절 시민교육 관점에서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1. 시민교육의 개념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성을 갖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며, 실질적으로 정치체제나 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다(이해주, 2010). 시민교육의 범위와 대상은 교육이 시행되는 맥락과 주체의 목표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선행 연구를 볼 때 역사, 헌법, 정치체계, 인권, 국제관계, 경제학, 복지, 언론, 지리, 윤리 등이 포함되며 기본 교육은 성인기 이전에 이루지지만 근래에 들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Losito & Mintrop, 2001; Morris et al., 2013; Swan et al., 2013).

2. 시민교육의 현황

시민교육에 관해 가장 연구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2013년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에 의해 젊은 세대의 대학, 진로, 그리고 시민적 삶에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College, Career, and Civic Life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State Standards (이하 C3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었던 바 있다(Swan et al., 2013). 이는 현재 가장 널리 인정되는 시민교육의 프레임워크로, 시민, 경제, 지리, 역사의 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영역을 구성하는 세부 주제에 따라 [그림2-6]과 같이 발달 단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BY THE END OF GRADE 2	BY THE END OF GRADE 5	BY THE END OF GRADE 8	BY THE END OF GRADE 12
INDIVIDUALLY AND WITH OTHERS, STUDENTS...			
D2.Eco.1.K-2. Explain how scarcity necessitates decision making.	**D2.Eco.1.3-5.** Compare the benefits and costs of individual choices.	**D2.Eco.1.6-8.** Explain how economic decisions affect the well-being of individuals, businesses, and society.	**D2.Eco.1.9-12.** Analyze how incentives influence choices that may result in policies with a range of costs and benefits for different groups.
D2.Eco.2.K-2. Identify the benefits and costs of making various personal decisions.	**D2.Eco.2.3-5.** Identify positive and negative incentives that influence the decisions people make.	**D2.Eco.2.6-8.** Evaluate alternative approaches or solutions to current economic issues in terms of benefits and costs for different groups and society as a whole.	**D2.Eco.2.9-12.** Use marginal benefits and marginal costs to construct an argument for or against an approach or solution to an economic issue.

(Swan et al., 2013)

[그림 2-6] C3 프레임워크의 발달 단계별 달성 목표 예시

3. 시민교육의 필요성

이해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시민교육은 우선 개별화된 개인을 사회의 공적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생활을 유도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시민교육은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수한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의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우수한 지도자를 배출해내는 바탕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해 인식하고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지자를 기르는 의미가 있다.

4. 시민교육의 스펙트럼과 다층위적 성격

1) 협의의 시민교육과 광의의 시민교육의 차이

시민성과 시민교육은 해석의 정도에 따라 [그림 2-7]과 같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 극단에는 공식적이고 배타적이며 지식의 전달에 중점을 두는 협의의 시민교육이 있고, 다른 극단에는 참여적이며 포괄적이며 가치와 과정에 기반을 두는 광의의 시민교육이 있다(Kerr, 199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협의의 시민교육은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 현상과 기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치 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광의의 시민교육은 여기에 더하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해 있는 활동 공간인 직장, 지역사회, 국가, 또는 세계 지구촌 전체의 시민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 생태 등의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질을 길러주는 일체의 과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이해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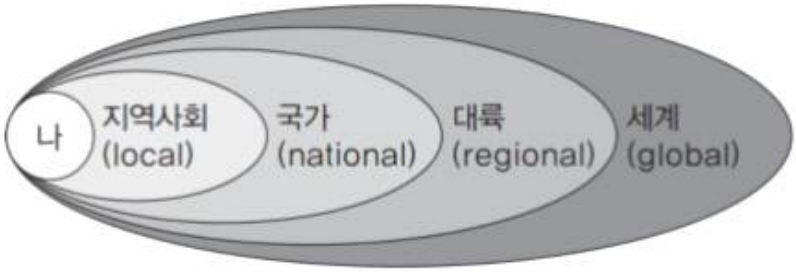
MINIMAL		MAXIMAL
thin	———	thick
exclusive	———	inclusive
elitist	———	activist
civics education	———	citizenship education
formal	———	participative
content led	———	process led
knowledge based	———	values based
didactic transmission	———	interactive interpretation
easier to achieve and measure in practice	———	more difficult to achieve and measure in practice

(Kerr, 1999)

[그림 2-7]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스펙트럼

2) 광의의 시민교육이 갖는 다층위적 성격

광의의 시민교육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에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층위에 걸맞은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다층위적 지위는 예컨대 [그림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강순원, 2010)

[그림 2-8] 시민교육의 다양한 층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시민들이 갖는 다층위적 지위는 때로 지위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히터(1990)는 다층적 차원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다층적 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던 바 있다.

5.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의 목표와 효과 역시 다층위성을 갖는다. Crowley & Swan (2018)은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경제·금융 교육을 분석하여 이를 경제시민의 4단계 원형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스스로의 경제생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경제시민이다. 이 경제시민은 본인의 소비, 투자, 예산편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며, 본인의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제시민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국가 수준에서 집단 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참여적 경제시민이다. 이는 예컨대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경우 자전거를 타거나 차량공유를 옹호하는 등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 번째는 경제학적 지식을 이용해 사회의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정의 지향적 경제시민이다. 정의 지향적 경제시민은 경제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은 사회가 당면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기회를 통해 주변인들과 함께 문제에 관해 토론하여 문제에 대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분별력 있는 경제시민이다. 이처럼 Crowley & Swan (2018)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금융 교육의 목표는 단일하지 않으며, 목표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경제시민의 양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의학교육 관점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적용

의학교육에서 경제·금융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을 의과대학생과 의사에게 어떻게 구현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림 2-5]에서 제시되었던 '나-지역

사회-국가'의 개념을 의사라는 직업에 맞추어 생각해볼 때 '의사 개인-직업인으로서 의사-의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틀로 시민교육의 다층위성을 해석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민교육의 요소로서 경제·금융 교육이 갖는 다층위성은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 직업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참여하고 정의를 지향하는 의사, 그리고 의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분석적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분별력 있는 의사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의학교육에서 다층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

제 3절에서 제시되었던 3단계 틀인 '의사 개인-직업인으로서 의사-의료시스템의 구성원으로서 의사'에 입각하여 각 층위에 따라 의학교육 분야에서 경제·금융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본다. 또한 의사의 진로라는 관점에서도 경제·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탐색해본다.

1. 의사 개인의 삶과 경제·금융 문해력

1) 경제·금융 문해력에 따른 부채행동

OECD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과 Potrich와 Vieira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금융 문해력은 경제·금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채행동이다. 경제·금융 문해력은 부채에 관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며, 높은 경제·금융 문해력을 가질수록 과도한 부채를 일으킬 확률이 낮아지며, 낮은 경제·금융 문해력을 가질수록 과도한 부채의 위험이 늘어난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Lusardi & Tufano, 2015; Sevim et al., 2012).

2) 부채에 따른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

한편 의과대학생에게 있어서 부채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부족한 선행연구로 인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특정 조건의 의과대학생 집단에서는 총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차의료 관련 전공 선택 확률 및 소외된 지역 근무 확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공립 의과대학 출신이거나 중산층

가정 출신 중 부채 또는 미래 예상 부채가 많은 경우, 혹은 $250,000 이상의 과도한 부채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Distribution & Workforce, 2009; Phillips et al., 2010, 2014). 부채와 국내 의과대학생의 진로선택의 관계는 아직 연구된 바 없지만 의과대학생 중 부채나 학자금 대출이 학비 마련의 수단인 의과대학생이 26%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Seo et al., 2015), 국내 의과대학생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관찰될 가능성이 있다.

3) 부채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재무적 안녕

부채는 의과대학생과 의사의 재무적 안녕 및 피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2014년 미국의 22개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에서는 부채를 $50,000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부채 구간의 증가는 극심한 피로, 부채 상환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채 관리 능력에 대한 걱정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ohlfing et al., 2014). 한편 캘리포니아의 Community Memorial Health System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는 레지던트들이 경제·금융 문해력을 부채에 대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레지던트 과정 중 경제·금융 문해력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Garrett et al., 2022).

2. 의사의 직업전문성에서 경제·금융 지식

의사의 직업전문성은 전통적으로 이타성, 사회적 책무성, 수월성, 의무감, 명예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여섯 가지 핵심 단어로 설명되어 왔지만(Stobo, J., Kohen, J., Kimball, H., LaCombe, M., Schechter, G., & Blank, 1995), 의학 외의 철학, 경제학, 미학 등 다른 제 분야에 대한 지적인 확장이 직업전문성의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man, 1998; Wear & Castellani, 2000). Relman은 의료에 대한 시장(market) 관점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의사들이 의료의 재원이나 비용 그리고 재정구조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료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현상을 이해하고, 제약사나 각종 의료 관련 기업들과 의사들이 건전한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man, 1998).

의학교육 분야에서는 환자와 사회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환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반응성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환자와 의사소통할 역량을 전공의의 필수적인 덕목으로 제시하였고(ACGME, 2017),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의 미션을 사회의 인구, 경제 및 문화적 변화에 일치시킬 것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Boelen et al., 2016).

3. 시스템 의학에서 가치기반 의료와 경제·금융 지식

시스템 의학(Health systems science)은 의료가 어떻게 전달되며 전문인력들이 어떻게 의료 전달을 위해 협동하는지,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돌봄과 의료 전달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로,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과 의학의 세 번째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Skochelak et al., 2017). 시스템 의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가치기반 의료는 어떠한 의료가 추구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자 미래 의료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서, 의사들이 시스템적 사고의 일환으로 경제·금융 지식을 갖춰야 하는 하나의 당위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 Institute of Medicine에 의해 의료 시스템의 달성 목표로 STEEEP (safe, 안전성; timely, 정시성, effective, 효과성; efficient, 효율성; equitable, 형평성; patient centered, 환자중심성)이라는 6가지 가치가 제시되었고, 이는 가치기반 의료를 정의하는 요소로 자리잡았다(Baker, 2001). 가치기반 의료에서 가치란 다양한 조작적 정의에 의해 표현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림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Skochelak et al., 2017).

$$\text{Value} = \frac{\text{Quality (Outcomes + Safety + Service)}}{\text{Total cost}}$$

(Skochelak et al., 2017)

[그림 2-9] 가치 공식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치기반 의료는 반드시 비용에 대한 평가를 수반해야 하고 가치기반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비용 민감성이 중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의 비용 민감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Resnicow et al., 2019). 증가하는 의료 비용과 한정된 의료 자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치기반 의료가 점차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개인의 경제·금융 지식과 문해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4. 의사의 다양한 진로 및 사회적 역할에서 경제·금융 지식

의사의 가장 흔한 진로는 임상의로서 일하는 것이지만, 의사는 임상 이외의 분야인 저널리즘, 제약업, 정책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기도 하며, 임상 진료를 병행하면서 경영자나 교육자 등 다양한 직업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Falcone & Satiani, 2008; Khatana et al., 2017; Sweiti et al., 2019). 또한 임상의로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의사는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데, 예컨대 한 과나 부서의 책임자로서 의료기기 구매나 인력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캐나다의 CanMEDS는 이처럼 다양한 의사의 진로와 역할을 반영하여 전문가, 소통가, 협업가, 리더, 건강의 수호자, 학자의 6가지로 의사의 필수 역할을 정의한 바 있다(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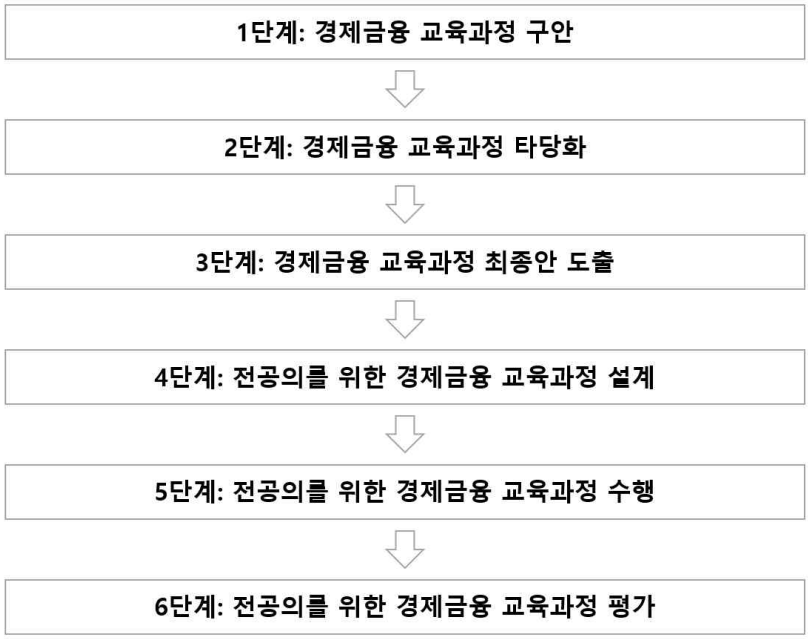
의사가 이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고 또 다양한 직업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경영학의 내용을 익힐 필요가 있다. 북미의 의과대학에서는 경영학이나 조직관리에 관한 내용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며, 경제·금융 개념을 질관리(Quality assurance)와 연관시켜서 가

르치는 사례가 다수 있다(Busari et al., 2011). 우리나라에서도 비임상 진로를 고려하는 의과대학생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K. J. Kim et al., 2013; Park Jung Han Kim Kyung Hwan, 1999), 다양한 진로를 추구하는 의과대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는 한편 조직의 리더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경제·금융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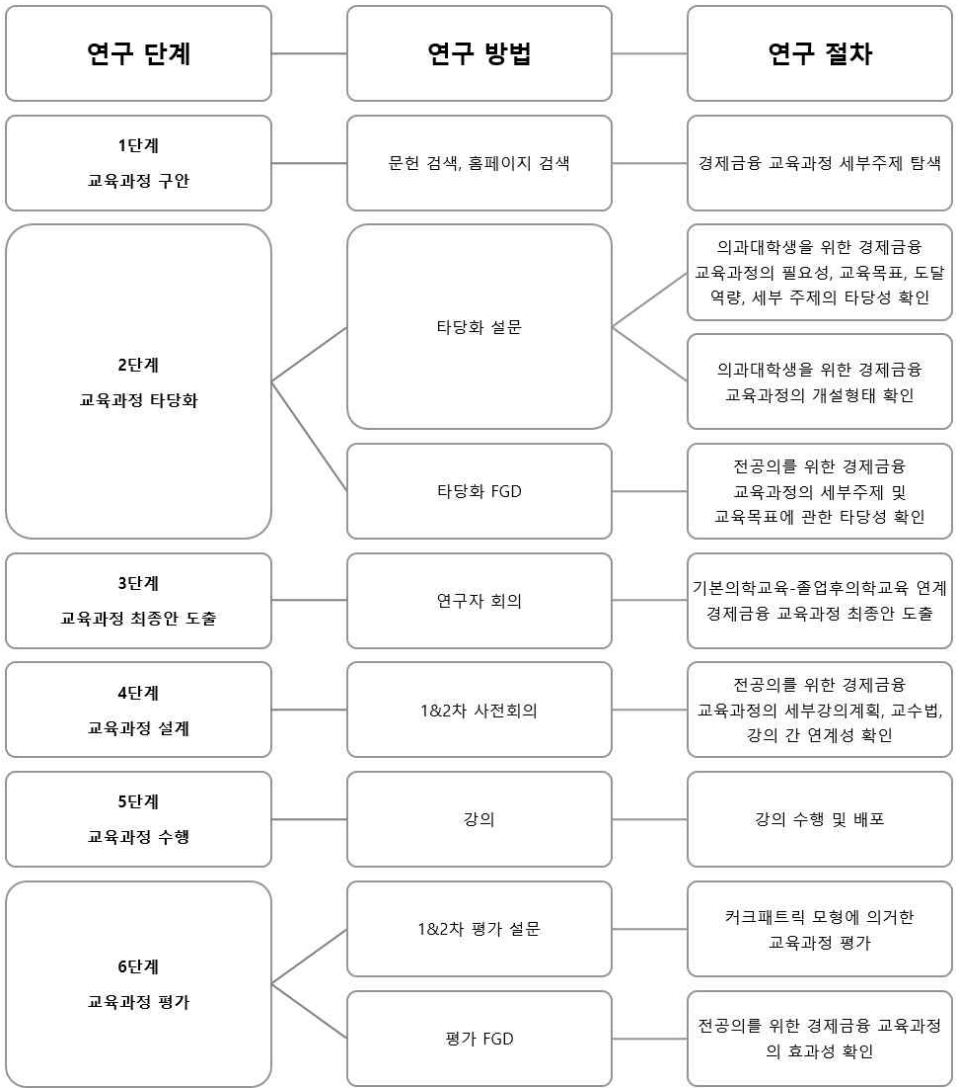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을 수행하며 수행된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1]의 여섯 단계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각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타당화, 최종안 도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수행 그리고 평가. 연구 단계 별 세부 연구 절차는 [그림 3-2]에 도식화하였다. 사례연구, 설문, FGD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IRB 승인을 받았다(IRB No. E-2302-026-1402, E-2302-091-1423, E-2305-010-1427).



[그림 3-1]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 모형



*FGD: Focus Group Discussion

[그림3-2] 연구의 절차와 방법

1.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문헌 검색

2021년 10월 4일부터 2021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검색을 하였다. 의과대학생 경제교육, 의과대학생 금융교육, 전공의 경제교육, 전공의 금융교육의 네 가지 키워드에 관련된 논문, 교과서, 정부 기관 보고서를 펍메드(PubMed) 및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였다. 확인된 문헌 중 실제 교육이 수행된 것을 기록한 문헌만을 포함시켰으며 문헌조사나 단순설문은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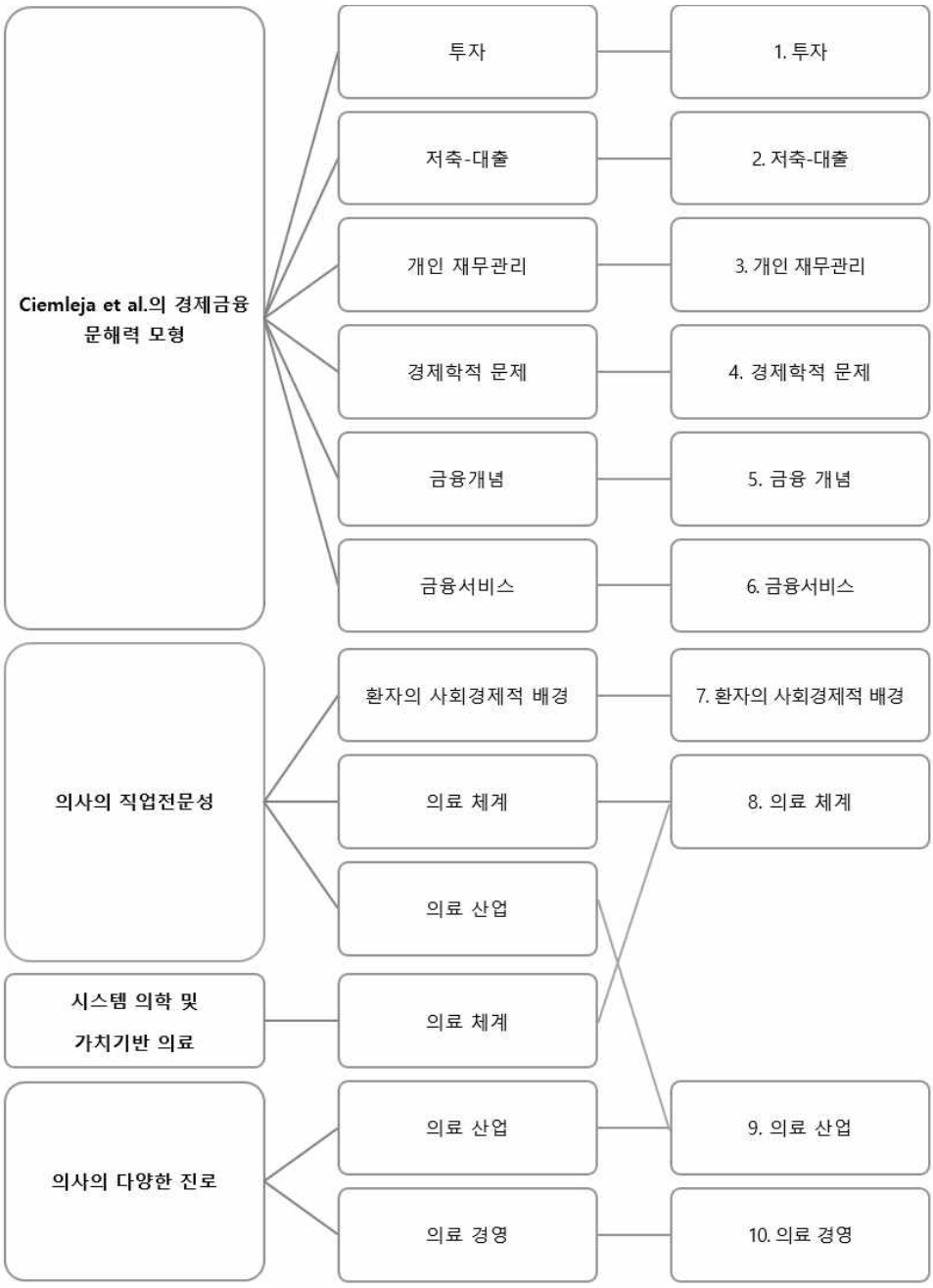
2) 홈페이지 검색

홈페이지 검색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의 경제·금융 평생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공개강좌, 의료 관련 MBA 교육과정을 탐색하였다. 홈페이지 검색 시 의료에 특화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탐색하였으며,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탐색하였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명지대학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확인하였고, 해외에서는 뉴욕대학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플로리다 대학교의 의료 관련 MBA 교육과정 및 edX (미국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그림 3-3]에 도식화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은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서 제시된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에 제 2장 제 5 절에서 제시된 '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금융 지식의 필요성' 항목의 4가지 주요 요소를 반영하여 도출되었다. 이후 해당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들의 토의를 거쳐 항목에 맞게 분류하였다. 개발모형에 따른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반복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림 3-3]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

2.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타당화 설문

눈덩이 표집법에 의해 모집된 전국의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구안된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에 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부록 1]과 같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개인 식별자 없이 설문 문항에 대한 답안만 수집하였다.

의학분야에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필요한 설문 패널의 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Fink, Kosecoff, Chassin, & Brook, 1984), 균질한 전문가 집단인 경우 10명에서 15명 이상을 권고한 Tersine & Riggs (1976)의 연구와 의학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의 대상자수를 참조하여 최종 응답자 중 의학교육 전공자 10명 이상 및 의사 10명 이상이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Janssen, Brölmann, & Huirne, 2011; Palter, MacRae, & Grantcharov, 2011; Veronesi et al., 2018).

이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기초통계 및 평균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각 항목에 대해 내용타당도비율, 합의도, 수렴도를 계산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은 Lawshe (1975)의 계산법에 의거하였고, Ayre & Scally (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패널의 크기에 따른 기준값을 준용하였다. 합의도와 수렴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0.75 이상과 0.5 이하를 의견의 일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Cha et al., 2022; S. Kim, 2020; You, Kim, Lee, & Kwon, 2021).

이후 연구진 간의 논의를 통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타당화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으로 발전 및 구현시키기 위한 FGD 질문을 구성하였다.

2) 타당화 FGD

눈덩이 표집법에 의해 모집된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를 수행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필요한 세부주제, 교수법, 교수자, 난이도 구성에 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FGD의 시간은 60분이었으며, 단회로 진행되었다. FGD는 녹취 후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가이드 131번에 의거하여 주제분석을 시행하였다(Kiger & Varpio, 2020).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설문조사에서 타당화한 교육목표 및 도달역량을 토대로, FGD 결과를 반영하여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에게 적합한 세부주제를 배분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최종 도출하였다.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학사 및 행정적인 제반 여건 상 의과대학생에 대한 강의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를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전문가 추천에 의해 총 6명의 연자를 모집하였으며, 연자 및 연구진은 60분의 사전 회의를 2회 가졌다. 사전 회의를 통해 세부강의계획과 교수법, 그리고 강의 간 연계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강의는 두 번에 걸쳐 촬영되었으며, 매 회 촬영 이후 온라인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 배포되었다. 첫 회 촬영 강의에 대한 교육은 2023년 1월 12일 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두 번째

회 촬영 강의에 대한 교육은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각각 2주씩 자율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전공의들은 시간 및 횟수에 상관없이 원내 교육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된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유튜브는 제한된 공개로 이루어져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총 2차례 강의 안내가 이루어졌고, 안내는 문자메세지 및 메일과 전공의협의회 공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6.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평가 설문

교육과정 평가를 위하여 평가 설문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강의 설문은 첫 회 촬영 강의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설문은 두 번째 회 촬영 강의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각각의 교육기간 동안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강의 설문의 문항은 [부록 2], 두 번째 강의 설문의 문항은 [부록 3]과 같다. 설문 문항은 커크패트릭 평가모형의 4단계 중 1~3단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개인 식별자 없이 설문 문항에 대한 답안만 수집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대하여 기초통계 및 평균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평가 FGD

평가 FGD는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기 수행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FGD의 시간은 120분이었으며, 단회로 진행되었다. FGD는 녹취 후 유럽의학교육학회(AMEE; Association for Medical Education in Europe)가이드 131번에 의거하여

주제분석을 시행하였다(Kiger & Varpio, 2020).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사례연구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안

1. 사례연구 결과

1) 국내 교육과정 분석

국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온라인 공개강좌의 세부주제 탐색 결과를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1]과 [부록 4]에 각각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은행의 '청소년 경제강좌(고등학생)'(한국은행, 2023), 금융감독원의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금융감독원, 2023),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금융교육'(서민금융진흥원, 2023), 명지대학교의 '금융교육특강'(명지대학교, 2019), 숙명여자대학교의 '금융경제 기초'(숙명여자대학교, 2018)의 총 5개 교육과정이었다.

국내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찾을 수 없었고, 일반 경제·금융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정들만 검색되었다. 검색된 대부분의 교육과정들이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 모형에서 제시된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고자 노력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투자' 영역은 깊이와 난이도 및 강의 시간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명지대학교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투자' 영역에 1개 강의를 활용하여 재테크 관련 내용을 개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배하였지만, 숙명여자대학교의 온라인 공개강좌 교육과정에서는 실제 다양한 투자 대상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비중 역시 7개 강의로 훨씬 더 높았다. 한국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처럼 아예 다루지 않는 교육과정도 있었다. '저축-대출' 영역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적어도 1개 강의 이상을 할애하였으며, 저축과 대출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가 절반 정도에 해당하였다. ‘개인 재무관리’ 영역에서는 재무설계에 관한 기초 내용을 다루고 있었지만,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노후와 연금’처럼 구체적인 주제가 포함되기도 하였다. ‘경제학적 문제’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목표가 가장 잘 드러났던 영역이었다.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하는 일’,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서민금융진흥원 에서는 ‘금융사기예방’ 등 기관의 정체성과 교육목표를 구현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명지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돈과 행복 그리고 취업’이라는 강의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특성이 잘 드러났다. ‘금융 개념’ 영역은 ‘투자’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마다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금융시장에 관해서 설명하는 강의를 배치했던 반면 일부 교육과정에서는 이자율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한 강의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서비스’ 영역은 우리나라 경제·금융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검색된 교육과정들이 일반 경제·금융 교육에 해당하는 만큼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해당하는 강의는 없었다.

[표4-1] 국내 교육과정(평생교육 프로그램) 세부주제 분석

영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1. 투자	-	- 금융투자의 이해 -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	-
2. 저축-대출	- 저축과 투자	- 저축의 이해 - 신용관리 - 부채관리	- 저축과 소비 - 부채관리 - 신용관리
3. 개인 재무관리	- 바람직한 금융생활	- 위험관리와 보험 - 노후와 연금 - 재무설계의 기초	- 재무설계
4. 경제학적 문제	- 한국은행이 하는 일 - 경기변동, 실업 및 인플레이션 - 시장경제의 원리 - 환율 따라잡기	- 신기술과 금융의 변화 -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사기예방
5. 금융 개념	-	- 금융의 역할과 주요 금융지표 - 금융상품과 금융시장	-
6. 금융서비스	-	-	- 서민금융의 이해 - 생활복지 - 창업금융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
8. 의료 체계	-	-	-
9. 의료 산업	-	-	-
10. 의료 경영	-	-	-

2) 해외 교육과정 분석

해외 온라인 공개강좌와 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탐색 결과를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2]와 [부록 5]에 각각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EdX 플랫폼의 'Healthcare Finance' (EdX, 2023), 뉴욕대학교의 'Financial Management for Health Care Orgs' (New York University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 2022),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Financial Management of Health Institutions'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9), 플로리다 대학교의 'Fundamentals of Healthcare Finance' (University of Florida & College of Public Health & Professions, 2019) 의 총 4개 교육과정이었다.

해외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에서는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이 다수 있어서 일반 경제·금융 관련 교육과정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검색된 4개 교육과정 모두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 중 '금융 개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는 거의 강의를 할당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인 만큼 선행 교육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루었거나 아니면 이미 관련 선행 지식을 갖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역에 관한 강의가 포함된 경우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관해서는 '제약'과 같이 개별 의료 산업,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의료 체계의 개별 요소, 또는 '수익사이클 관리'나 '가격 책정', '기업 공개' 등 의료 경영에 필요한 재무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표4-2] 해외 교육과정(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세부주제 분석

영역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Florida
1. 투자	-	-	-
2. 저축-대출	-	-	-
3. 개인 재무관리	-	-	-
4. 경제학적 문제	-	-	-
5. 금융 개념	- Financial Risk and Reward - Long-Term Financing - Debt & Equity - Cost of Capital and Capital Structure	- Debt & Term Sheets	- Income statement & Statement of change in equity - Balance sheet & Cash Flow
6. 금융서비스	-	-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
8. 의료 체계	-	- Medicaid & Medicare	- Healthcare environment
9. 의료 산업	-	- Introduction and Process of Raising Capital - Capitalization and Valuation - Pharma	-
10. 의료 경영	- Capital Budgeting - Project Risk Analysis - Healthcare Financial Environment, and Cost Behavior and Profit Analysi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 Departmental Costing and Cost Allocation - Service Line Pricing, Costing, and Decisions - Revenue Cycle and Current Asset Management - Financial Condition Analysis	- Regulatory Consideration and Due Diligence - Private Transactions and Mega Mergers : - Operational finance skills and management - IPOs and the role of Boards - Medical device / Distribution	-

3) 의학교육 내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분석

기본의학교육 및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에서 수행된 선행연구의 세부주제 탐색 결과를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에 의거하여 [표 4-3]와 [표 4-4]에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은 각 단계별로 2개씩 총 4개의 교육과정이었다(Bar-Or et al., 2018; Dhaliwal & Chou, 2007; Meleca et al., 2014; Mizell et al., 2019).

4개의 교육과정 중 Mizell et al.의 교육과정은 J. Mizell이라는 외과의사가 레지던트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다. Meleca et al.의 교육과정은 학생 대표의 주도로 시작된 선택교육과정으로 수요 기반 설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Bar-Or et al.의 교육과정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경영대학원 교수들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평가 설문에 의거하여 수정되었다. Dhaliwal & Chou의 교육과정은 개발에 관해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들이 '의료 경영' 영역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당하여 학생들이 향후 의사로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경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전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 모두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료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는 개인의 재무상태와 관련 있는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저축-대출', '개인 재무관리', '금융 개념', '금융서비스' 강의가 두 교육과정 모두에 포함되었다.

[표4-3] 기본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영역	Mizell et al	Meleca et al
1. 투자	- Investment Options	-
2. 저축-대출	- Student Loan Management	- Debt Forgiveness
3. 개인 재무관리	- Retirement Planning - Home Buying versus Renting - Managing Personal Cash Flow - Debt Reduction	-
4. 경제학적 문제	-	
5. 금융 개념	-	- Credit Reports and Taxes
6. 금융서비스	-	- Investing. ROTH IRAs, and Stocks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Healthcare Updates	-
10. 의료 경영	- Billing and Coding - Financial Data You Need to Know for your Practice - Starting Your Practice - Physician Recruitment - Malpractice Avoidance - Contracts - Physician Recruitment	- Business and Finance in Medicine Credit - Hospital Contracts - Medical Billing and Coding - Physician's Panel - Intra-office Cooperation in Private Practice - Life, Disability and Malpractice Insurances - Advocacy Training for Physicians and Patients

[표4-4] 졸업후의학교육 단계의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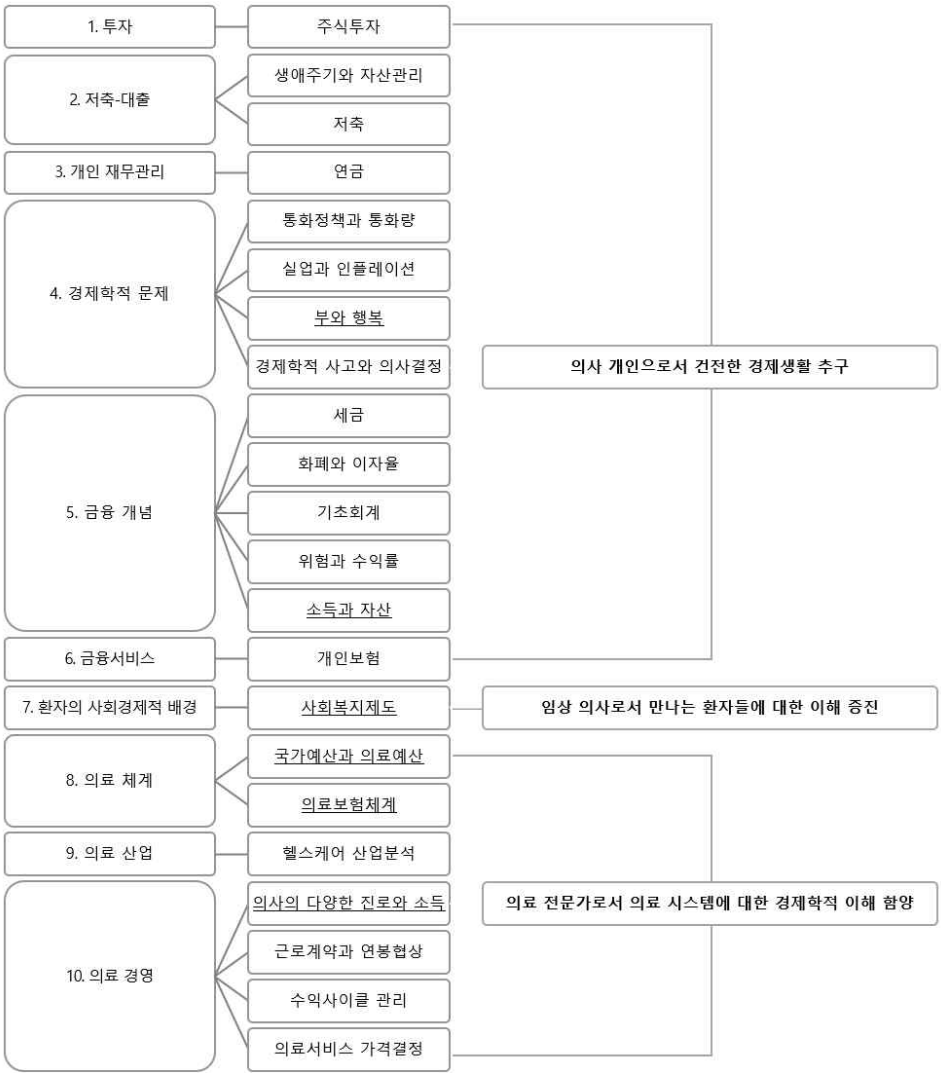
영역	Bar-Or et al	Dhaliwal & Chou
1. 투자	-	-
2. 저축-대출	- Managing Debt	- Debt - Savings and Investment
3. 개인 재무관리	- Budgeting Strategies at Different Stage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 Retirement Saving
4. 경제학적 문제	- Understanding Psychological Barriers to Decision-Making - Dealing with Financial Advisors	-
5. 금융 개념	- Understanding the Time Value of Money; Interpreting Balance Sheets - Basics of Investing, Risk, and Return	- Taxes
6. 금융서비스	- Evaluating Needs and Selecting Insurance	- Insurance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
10. 의료 경영	- Negotiating Employment Contracts	-

2. 사례연구를 통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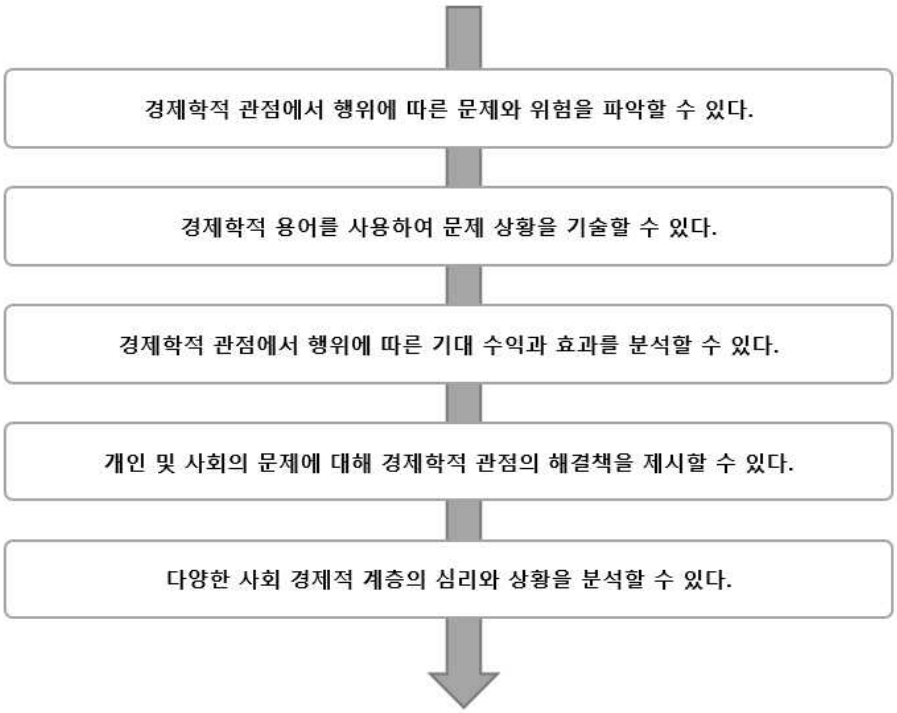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및 교육목표를 도출하여 이를 [그림 4-1]에 도식화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의료 경영' 영역에 비중을 두고 세부주제를 선정하였고, 각 영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우선하되 등장 빈도가 낮더라도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 하에 중요한 세부주제라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하였다. [그림 4-1]에서 밑줄로 표시된 세부주제는 선행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사실과 연구 필요성의 바탕이 되는 의사의 직업전문성, 시스템적 사고 및 다양한 진로라는 가치들을 감안하였을 때 연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한 세부주제이다. 해당 세부주제들은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의료체계' 영역에 주로 해당하였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 개발모형의 10개 영역을 유관 영역별로 묶어 교육과정 전체의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투자', '저축-대출', '개인재무관리', '경제학적 문제', '금융 개념', '금융 서비스'의 6가지 영역을 통해서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영역을 통해서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하며,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을 통해서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해당 교육과정을 완료한 이후에 도달할 역량은 순차적으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의 총 5개가 수준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이는

[그림 4-2]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4-1]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세부주제 및 교육목표



[그림 4-2]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한 도달역량

제 2 절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1. 설문을 통한 교육과정 타당화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세부주제, 도달역량, 교육목표를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타당화하기 위해 전국의 의학교육 전공자 및 서울대학교병원과 계명대학교병원 전공의, 전임의, 교수를 대상으로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설문을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87명이었고, 경제 및 금융 부문에 관심이 없다고 자기보고하거나 일주일에 2개 미만의 경제 및 금융 관련 기사를 읽는다고 자가보고한 사람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9명이 분석 대상에 해당하였다. 그 중 15명은 의학교육 전문가였으며, 14명은 임상 의사였다. 임상 의사 중 8명은 전공의, 3명은 전임의, 3명은 교수였다.

2)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아래의 [표 4-5]은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그리고 도달역량에 관한 타당화 설문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지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교육목표에 관해서는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라는 목표는 유의성을 확보하였지만,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은 그렇지 못하였다.

도달역량에 관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의 세 가지 역량은 수강 후 달성해야 할 역량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와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역량까지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내용	평균	내용타당도비율	합의도	수렴도
교육과정의 필요성				
중요성	82.07±13.33	0.79	0.81	0.08
필요성	80.34±12.60	0.79	0.75	0.10
시급성	72.07±22.14	0.45	0.57	0.15
교육목표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	5.08±1.06	0.59	0.80	0.01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	4.42±1.35	0.31	0.72	0.01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	5.08±0.72	0.59	0.95	0.00
도달역량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5.17±1.01	0.45	0.80	0.01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4.67±1.17	0.52	0.75	0.01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5.08±0.83	0.59	0.80	0.01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4.50±1.35	0.38	0.56	0.01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4.42±1.38	0.24	0.70	0.01

3)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세부주제에 관한 설문 결과를 [표 4-6]에 제시하였다. 총 22개 중 7개의 세부주제가 중요도와 필요도 모두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여 향후 강의주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였다. 해당 세부주제는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세금', '부와 행복',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료보험체계', '사회복지제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이었으며, 이들 7개 세부주제를 제외한 다른 세부주제 중 중요도나 필요도 중 하나라도 만족시킨 경우는 없었다.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저축', '연금', '개인보험', '화폐와 이자율', '위험과 수익률', '주식투자', '기초회계', '통화정책과 통화량',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득과 자산', '국가예산과 의료예산', '수익사이클 관리', '헬스케어 산업분석',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근로계약과 연봉협상'.

[표 4-6]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내용	중요도				필요도			
	평균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	수렴도	평균	내용타당도 비율	합의도	수렴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86.10±22.84	0.79	0.78	0.10	84.48±24.43	0.66	0.80	0.10
저축	67.93±30.98	0.38	0.50	0.20	67.07±30.63	0.31	0.50	0.20
세금	85.52±16.60	0.79	0.78	0.10	84.48±17.03	0.66	0.78	0.10
연금	69.83±28.92	0.31	0.50	0.20	68.79±29.45	0.31	0.50	0.20
개인보험	71.03±26.77	0.45	0.0	0.20	70.86±26.12	0.45	0.69	0.13
화폐와 이자율	69.48±29.95	0.31	0.50	0.20	66.90±32.42	0.24	0.50	0.20
위험과 수익률	73.10±25.65	0.31	0.63	0.15	71.38±26.96	0.38	0.50	0.20
주식투자	71.03±28.33	0.38	0.63	0.15	70.69±28.53	0.31	0.63	0.15
기초회계	74.48±23.08	0.38	0.63	0.15	73.97±23.28	0.38	0.63	0.15
통화정책과 통화량	61.21±33.10	0.17	0.57	0.15	56.38±35.02	-0.03	0.17	0.25
실업과 인플레이션	56.55±34.05	-0.03	0.33	0.20	51.03±34.88	-0.24	0.17	0.25
소득과 자산	62.24±32.99	0.17	0.29	0.25	59.48±33.82	0.03	0.29	0.25
부와 행복	73.79±29.57	0.59	0.75	0.10	72.41±31.81	0.52	0.75	0.10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83.17±19.11	0.72	0.78	0.10	81.90±21.81	0.59	0.78	0.10
국가예산과 의료예산	69.14±28.60	0.38	0.63	0.15	67.76±28.02	0.38	0.71	0.10
의료보험체계	84.07±25.98	0.79	0.78	0.10	83.97±26.16	0.79	0.78	0.10
사회복지제도	74.48±29.20	0.66	0.75	0.10	71.55±30.09	0.52	0.75	0.10
수익사이클 관리	70.36±29.34	0.38	0.63	0.15	63.04±31.66	0.10	0.43	0.20
헬스케어 산업분석	63.72±33.88	0.31	0.43	0.20	63.79±33.64	0.31	0.57	0.15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72.86±26.10	0.45	0.63	0.15	71.10±26.98	0.38	0.63	0.15
근로계약과 연봉협상	79.31±26.82	0.59	0.67	0.15	78.10±28.30	0.59	0.67	0.15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71.97±27.71	0.72	0.75	0.10	70.17±27.40	0.59	0.75	0.10

4)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개설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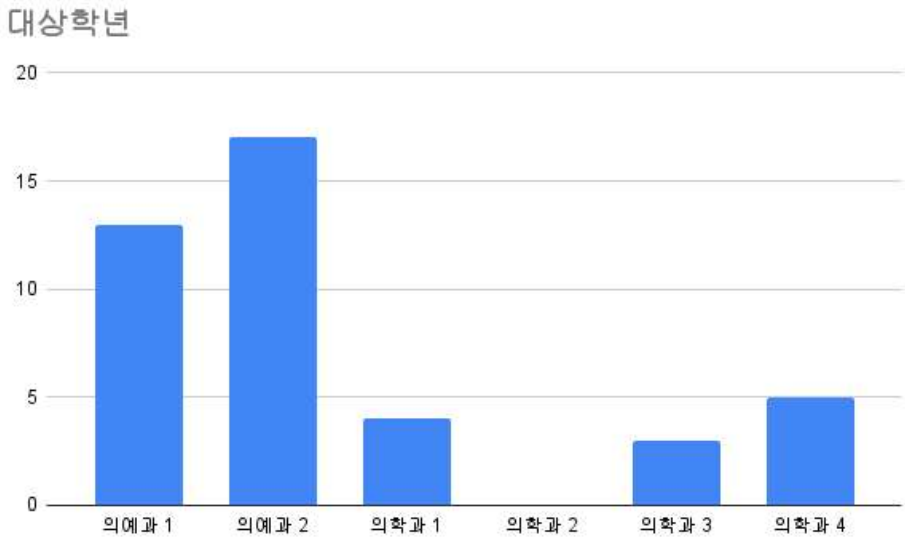
개설 형태에 관한 설문 결과를 [그림 4-3, 그림 4-4, 그림 4-5, 부록 6]에 제시하였다.

중복선택이 가능한 조건 하에서, 대상학년에 관해서는 의예과 1학년 및 의예과 2학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의학과에 입학하기 직전인 의예과 2학년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총 44개의 답변 중 17개를 획득하여 가장 빈도가 높았다(n=17, 38.6%). 의학과 1~3학년에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교적 적었으며, 특히 의학과 2학년에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의학과 4학년에 개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명으로 의학과 1~3학년보다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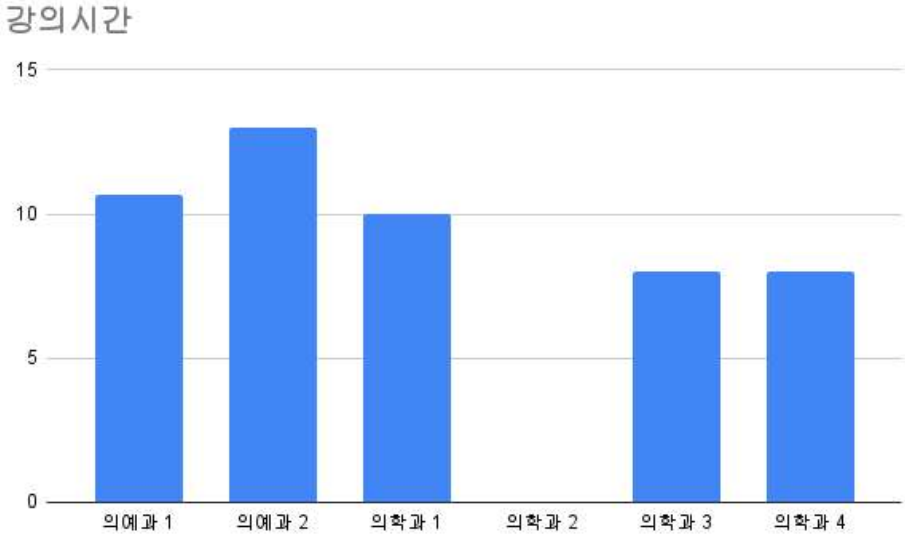
강의시간에 대한 응답 역시 의예과 2학년에서 평균 13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의예과 1학년에서 10.7시간을 기록하였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의학과 1학년과 의학과 3학년, 의학과 4학년의 적정 강의시간은 각각 10, 8, 8시간이었다.

강의형식에 관해서는 특강 형식을 선택한 응답이 전체 29개의 응답 중 14개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n=14, 48.2%). 의예과 2학년, 의학과 1학년에서는 학기 단위의 강의나 1년 단위의 강의를 선택한 응답도 있었지만, 의학과 3학년과 의학과 4학년에는 모두 특강형식 또는 3~4주 Block 강의를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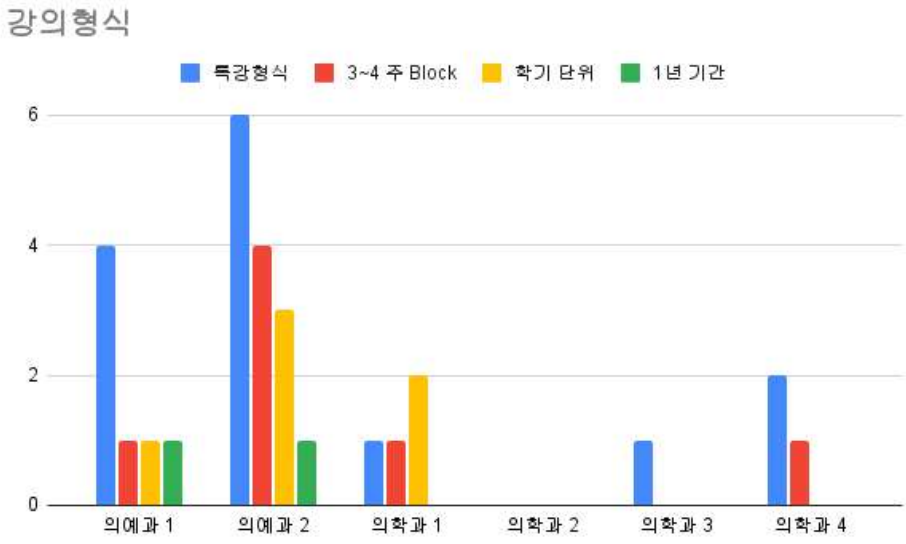
강의분류 중에서는 교양필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26개의 응답 중 12개였으며(n=12, 46.2%), 전공선택은 6개, 교양선택은 5개, 전공필수는 3개의 응답을 받았다.



[그림4-3] 경제·금융 교육과정 대상학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그림4-4]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시간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그림 4-5]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형식에 대한 타당화 설문 결과

2.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타당화 설문을 통해 확인된 결과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구현할지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학교육 전공자로 이루어진 총 6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수법, 세부주제의 3개 대분류 아래 총 5개 문항으로 [부록 7]과 같이 구성하였다.

FGD는 패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단계에 따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내용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여 [표 4-7]과 같이 19개의 초기 코드를 선정하였고, 이후 [표 4-8]과 같이 3단계에 걸쳐 주제를 추출하였다. 2단계 주제로는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의 전달 형태', '교육의 전달 방식', '의사 개인의 삶', '의사의 사회적 역할', '교육

과정의 세부주제'라는 총 6가지 주제가 추출되었으며, 3단계에서는 이를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수법',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패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였고 적절한 정도의 수요를 예상하였다. 시간이 부족한 전공의의 근무 환경과 배경 지식이 부족한 전공의의 지식수준, 그리고 짧은 집중시간을 고려할 때, 짧은 온라인 강의를 다수 만들어서 접근하기 쉽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포하고 자율 수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강의는 실무를 아는 강의자가 해당 세부주제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 의사 개인의 재무안전을 도모하고, 환자 및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대출', '보험', '수가', '연금', '연말정산',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강의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배치해야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표 4-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초기 코드	관련 응답 예시
예상되는 적절한 수요	“그래도 되게 제너럴한 그런 내용이고 니즈도 어느 정도... 뭔가 이거는 시간을 할애해서도 좀 들을 만한 그런 니즈가 있을 만한 교육인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	“뭔가 온라인 플랫폼에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같은 데가 좋긴 하겠지만...”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션 활용	“사실 저희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레지트라고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의 아지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다 익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되게 그냥 당근처럼 실질적... 이렇게 무슨 도움을 청하는 그런... 그런 글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병원에서 거기에 이제 vod를 올린다든가, 그거를 모아놓으면 좀 더 약간 프라이빗하게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강의시간	“물론 그게 너무 로딩이 크면 잘 안 듣긴 하겠지 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할애해서 만약에 듣는다고 하면...” “짧게 짧게...”
쉬운 설명	“그래서 그런 진짜 이렇게 경제 좀 쉽게 설명해주면, 재미있게 좀 얘기해주면...”
실무를 아는 강의자	“보험 설계사도 진짜 모셔다가 생명 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고 실손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는지...” “그래서 보험 심사팀 직원 선생님 모셔다가 정말 강의도 해주시고“
실절적인 내용의 교육	“이런 뜬구름 잡는 거 빼고 수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금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vod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적인 수강방식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짜여져 있는 커리큘럼이 있는 프로그램을 뭔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수강해서...” “이런 거는 정말 짜여져 있는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직접 enroll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생각하거든

	요?”
개인의 재무안정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리더가 파산하면 답이 없고...”
환자에 대한 이해	“근데 이거 모르면 환자랑 대화가 안 돼요.”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래서 내가 오늘 환자 내면 이 환자 오늘 얼마 내고 갈 거고, 그게 본인 부담금의 몇 퍼센트고, 공단 부담금이 몇 퍼센트인지… 근데 그 퍼센트가 진료비의 퍼센트가 다르고, 처치료의 퍼센트가 다르고, 그리고 입원 환자는 입원비만 내는 게 아니라 식대에 처치료에 가산수가에 등등이 붙고.. 같은 약을 내도 급여가 적용이 될 때의 값이랑 비급여랑 임의 비급여랑, 또 뭐 있더라... 아무튼 뭔가 이상한 제도들이 많고... 실비보험은 뭐 뭐뭐뭐가 항암 치료에서 커버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진로	“이거 이해 못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적자가 난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신과 같은 경우는 입원은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적자가 맞지만 외래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자기 커리어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로 계약	“이제 그런 것들이 근로계약 예시도 있으니까...” “급여 명세서도 한 번도 이게 제대로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보 는 방법이나...”
대출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는 방법이라 든가, 마이너스 통장은... 의대에서부터 많이 쓰는 것 같긴 하지만...”
보험	“보험 설계사도 진짜 모셔다가 생명 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고 실손보험은 뭐뭐뭐를 커버하는지...” “(보험) 약관 그런 거 읽는 법”
수가	“수가! 솔직히 말하면 OOO 선생님, 오늘 외래 왔다 가신 환자분이 얼마나 내고 가셨는지 아세요?” “저는 진짜 무조건 수가. 수가 한 10시간 가르쳐도 모자라요” “이제 교수가 되니까 교수님들이 삭감을 매달 4월 삭감 내역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거랑 비교하고… 근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전공의들은 사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것도 보험 심사팀에서 이거 ‘진단명 이거 넣어야 된다

	′, ‘챙겨라′ 이거 하니까 그냥 되게 막 귀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뭐 막 산부인과나 이런 데는 뭐 조금만 조금만 뭐 이거 수술명을... 그러니까 같은 수술인데 다르게 넣으면 훨씬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를 또 관심 있어 하는 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실제적으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사학연금 같은 게 어떻게 나가는 거 고,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고...” “아까 OOO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왜 이렇게 연금에서 많이 빼가는지...”
연말정산	“사실 제일 당황할 때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냥 대충 클릭 클릭하고 끝나고 이러는데, 그런 것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고...”
자산관리	“그런 자산을 내가 이제 얼마를 받게 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표 4-8]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주제 탐색 결과

주제		초기 코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필요성		- 예상되는 적절한 수요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수법	교육의 전달 형태	- 온라인 강의 - 전공의 협의회 어플리케이션 사용
	교육의 전달 방식	- 짧은 강의시간 - 쉬운 설명 - 실무를 아는 강의자 - 실질적인 내용의 교육 - 자율적인 수강방식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의사 개인의 삶	- 개인의 재무안정
	의사의 사회적 역할	- 환자에 대한 이해 -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 - 진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주제		- 근로계약 - 대출 - 보험 - 수가 - 연금 - 연말정산 - 자산관리

제 3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1.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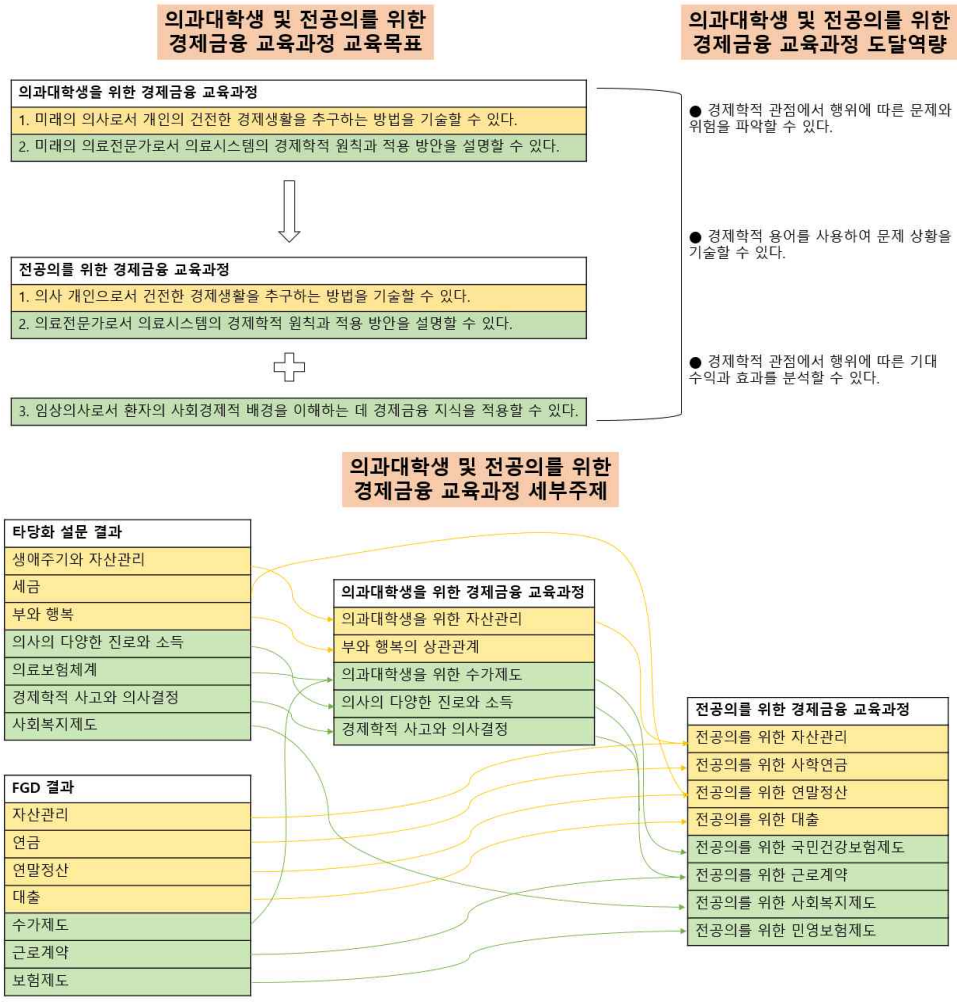
설문과 FGD를 통해 타당화한 세부주제를 활용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그림 4-6]과 같이 확정하였다. 타당화 설문 및 FGD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의학교육 수준 및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교육목표를 각각 확정하였고, 도달역량은 각 수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론적으로 기술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는 개념에 관련된 강의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실무에 관한 강의를 배치하고자 하였다.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의 두 가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고,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전공의들의 임상 경험을 고려하여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추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였다.

도달역량에 관해서는 타당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의 세 가지 역량을 각 수준의 강의에서 모두 달성해야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자산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의과대학생과 소득이 있는 전공의의 관점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기본의학교육 수준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모두 배치하였다.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과대학

생을 위한 자산관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라는 이름의 강의를 두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개념적인 내용을 배우고,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서 세부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6]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세금’은 소득이 없는 의과대학 입장에서 중요성을 느끼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였다. 세금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사회 초년생으로서 세금에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어려움인 ‘연말정산’에 관한 강의를 배치하였다.

‘부와 행복’,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은 관념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름의 강의를 각각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였으며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은 진로 결정에 관해 선택의 여지가 보다 더 많은 의과대학생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만 배치하였으며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체계’와 ‘수가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므로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모두 배치하였다. 각각 ‘의과대학생을 위한 수가제도’ 와 ‘전공의를 위한 수가제도’라는 이름으로,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는 의료보험체계 전체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를 위한 수가제도’에서는 기본의학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사례와 예시, 그리고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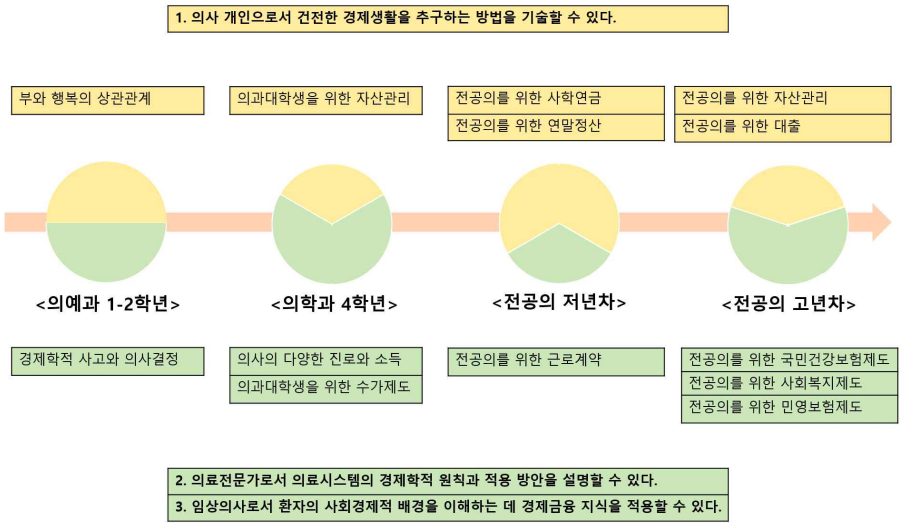
‘사회복지제도’와 ‘보험제도’는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과 민간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진료를 직접 하지 않는 의과대학생이 필요성을 체감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되며 실무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만 ‘전공의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라는 이름의 강의를 배치하였다.

‘연금’과 ‘대출’은 의사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금융서비스 및 활동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의과대학생이 배우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필요한 내용이므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전공의를 위한 사학연

금', '전공의를 위한 대출' 강의를 할당하였다.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역시 소득이 있는 전공의에게 더 적합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에 '전공의를 위한 근로계약' 강의를 배치하였다.

2.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전공의 4-5년의 현행 의학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그림 4-7]과 같이 마련하였다.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에서 확정되었던 주제를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시기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림 4-7]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

소득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배경지식, 그리고 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예과 1-2학년 시기에는 개념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강의를 배치하였다. 의학과 4학년은 대부분의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전공의 수련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수

련을 받고 않고 일반의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마지막 단계임을 고려하여 '의과대학생을 위한 자산관리',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과대학생을 위한 수가제도' 강의를 배치하였다. 인턴이나 전공의 1년차에 해당하는 전공의 저년차 시기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사회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사학연금이나 연말정산, 근로계약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고년차 시기에는 자산이 형성되고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강의를,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사회복지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에 관한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의를 배치하였다.

제 4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기획

도출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추천을 통해 각 강의에 적합한 강사를 모집하였다. 학사 및 행정적 제반 여건 상 모든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워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의 총 5개 강의를 전체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파일럿 강의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의의 형식은 VOD 촬영 및 온라인 배포로 확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문가 추천을 통해 촬영에 동의한 6명의 강사를 섭외하였다. 각 강사의 약력은 [부록 8]과 같다. 모집된 강사들과 함께 2회차에 걸친 사전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에서는 세부강의계획, 교수법, 강의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조율하였다.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강의계획 상세

강사 및 연구진의 토의를 통해 마련된 강의별 세부강의계획은 [부록 9 - 13]과 같다. 세부강의계획에는 모든 강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육목표와, 강의별로 개별화한 강의목표를 제시하였고, 수강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교재 및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통일성을 위해 모든 강의의 시간과 구조는 동일하게 계획하였다. 총 시간은 1회 강의 당 20분이었으며, 도입 3분, 전개 15분, 정리 2분으로 나누었다. 도입 부분에서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과 학습목표를 제시하도록 하였고, 전개 부분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범주화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정리 부분에서는 강의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한 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20분 1강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4개 강의에 대해서는 20분 2강으로 강의 당 총 40분을 배정하였으며,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만 20분 1강으로 확정하였다.

교수법으로는 모든 세부주제에서 강의가 사용되었고, 일부 강의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하여 비대면 activity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제 5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수행

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촬영 및 배포

강의는 총 2회에 나누어 촬영하였다. 강의 별 대표 사진은 [부록 14 - 19]과 같다.

강의의 배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제한된 보기로 업로드 한 뒤,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소속의 전체 인턴 및 레지던트에게 총 2회 문자 및 이메일로 안내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안내메세지를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인 '레지트'에도 게시글 형태로 노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사이버연수원에 유튜브와는 별도로 같은 VOD가 업로드되었다.

강의는 총 2회에 나누어 배포되었다. 첫 회 촬영 강의인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이 첫 회차에 배포되었으며, 두 번째 회 촬영 강의인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가 두 번째 회차에 배포되었다. 강의 제공 기간은 두 회차 모두 14일이었다. 강의 제공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평가와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강기간 동안 서울대학교병원 사이버연수원을 제외한 각 강의별 공식 유튜브 계정 조회수는 [표 4-9]과 같다.

[표 4-9]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별 조회수

강의명	조회수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1)	161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2)	49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대출 (1)	60
전공의를 위한 대출 (2)	46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1)	108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2)	73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63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28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57

제 6 절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설문을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1) 연구 대상자 기초 정보

서울대학교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 중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첫 회차에 대한 응답자는 총 38명, 두 번째 회차에 대한 응답자는 총 23명이었다. 첫 회차 응답자 38명의 구성은 인턴 8명, 레지던트 1년차 7명, 레지던트 2년차 8명, 레지던트 3년차 8명, 레지던트 4년차 7명이었으며, 두 번째 회차 응답자 23명의 구성은 인턴 8명, 레지던트 1년차 3명, 레지던트 2년차 3명, 레지던트 3년차 5명, 레지던트 4년차 4명이었다. 두 번째 회차 응답자 23명 중 첫 번째 회차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16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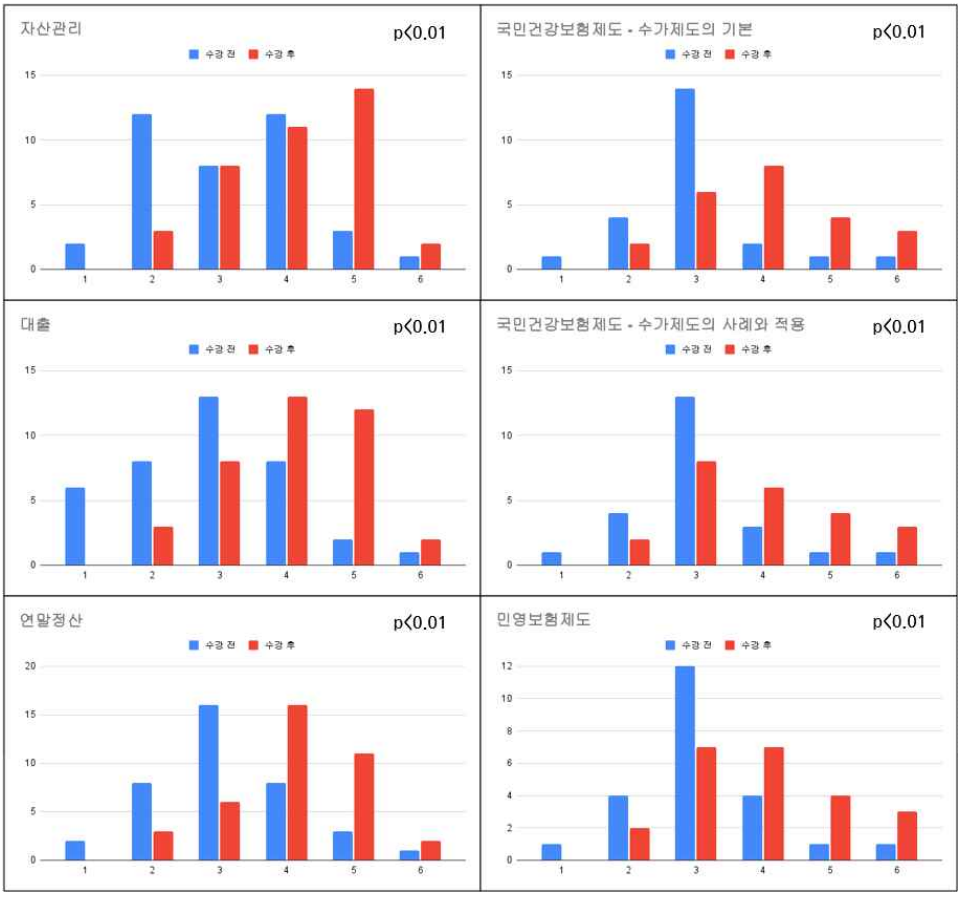
2) 평가 설문 결과 상세

아래의 [표 4-10]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대해 보통 이상의 흥미도를 보였으며,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준비수준, 강의시간 등 교수법에 대해서도 모두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강사의 준비수준은 모든 강의에서 4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받아 긍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자가보고를 통해 평가한 강의 전후 지식 변화는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모든 강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음을 [그림 4-8]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행동 변화에 관해서는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응답이 있었으나, 어떤 대상에게 배운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그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설문 결과

	자산 관리	대출	연말 정산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민영보험제도
1단계 반응/만족도						
강의는 흥미로웠습니까?	3.95±1.07	3.92±1.20	3.89±1.25	3.87±1.18	3.78±1.13	3.83±1.19
강의의 내용은 적절하였습니까?	4.26±1.16	4.26±1.21	4.21±1.24	3.91±1.16	4.00±1.04	3.96±1.02
강의의 방식은 적절하였습니까?	4.13±1.2	4.18±1.21	4.05±1.21	3.74±1.21	3.83±1.27	3.87±1.06
강사의 준비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4.32±1.10	4.32±1.10	4.24±1.09	4.13±1.25	4.17±1.23	4.30±1.15
강의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4.13±1.26	4.08±1.18	4.05±1.23	3.83±1.44	3.96±1.46	3.83±1.47
2단계 지식변화						
강의를 듣기 전 귀하의 지식은 어떠하였습니까?	3.13±1.17	2.87±1.22	3.13±1.08	3.04±1.02	3.09±1.04	3.13±1.06
강의를 듣고 난 후 귀하의 지식은 어떠합니까?	4.11±1.05	4.05±1.02	4.08±0.98	4.00±1.17	3.91±1.20	3.96±1.19
3단계 행동변화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3.84±1.18	3.89±1.12	4.00±1.10	3.96±1.15	3.87±1.06	4.09±1.08
배운 내용을 적용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3.71±1.30	3.66±1.36	3.79±1.28	3.52±1.12	3.43±1.20	3.65±1.15



[그림 4-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지식변화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

2. FGD를 통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평가 설문을 통해 확인된 교육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보완점을 탐색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 의학교육 전공자로 이루어진 총 7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 타당성, 발전방향 3개 대분류 아래 총 9개 문항으로 [부록 20]과 같이 구성하였다.

FGD는 패널들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단계에 따라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 내용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여 [표 4-11]과 같이 32개의 초기 코드를 선정하였고, 이후 [표 4-12]와 같이 3단계에 걸쳐 주제를 추출하였다. 2단계 주제로는 '반응 평가', '교수법 평가', '세부주제 평가', '교육과정의 필요성', '교육과정의 당위성', '필수교육에 대한 찬반', '필수교육이 필요한 세부주제', '교육의 전달방식', '교육의 전달형태', '추가 교육 희망주제', '의과대학생 강의'의 총 11가지 주제가 도출되었고, 3단계에서는 이를 '교육과정 평가',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로 분류하였다.

FGD 결과 패널들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대해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교수법에 관해서는 전공의들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하여 짧은 강의로 구성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흥미 유발을 위해 순차적인 배포방식을 고민할 것을 제시하였고, 북마크 기능 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강의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의의 구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세부주제 중에서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에 해당하는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들이 다른 강의보다 전공의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관해서는, 필요성은 모든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였으나 교육의 당위성과 그에 따르는 필수교육 여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에 대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의 일환이자 근로소득자인 전공의의 자기보호를 위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과, 해당 강의들은 관심 있는 사람에 한해 찾아볼 수 있도록 강의를 제공하면 충분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교육을 필수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전체 교육과정 필수화에 반대 혹은 유보적인 의견이 있었고, 필수화 시에는 역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제도', '근로계약', '사회복지제도' 강의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그 중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필수화가 강한 공함을 얻었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향후에 실무적, 실질적인 내용을 담기 위하여 의사직 교수진의 참여와 내용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전공의 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행정적 제약이 상당하지만 세심하게 설계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면적인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다면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또한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보다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와 불평등',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환자와 행동경제학' 등의 추가 강의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장할 때에는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등에 관한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4-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초기 코드 생성 결과

초기 코드	관련 응답 예시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 수요	“저희 전공의들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북마크 기능 추가	“북마크 할 수 있게 해주면 보기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사례 중심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근데 이번에 동영상 강의에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 좋았던 게, 실제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가가 산정이 되는지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각론적인 내용이긴 해도, 조금 왜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공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그 세부적인 산정 방식 같은 것도 들어가면 좋지 않나...”
일괄 업로드에 따른 부담감	“일단은 처음에 한 번에 막 6개씩 투척하니까 좀 부담이 됐을 것 같고...”
적절했던 강의시간	“(적정 강의 시간은) 20분, 30분”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에 대한 흥미	“선생님들이 후에 전문의가 돼서 전문의 소득을 받고 이후에 나중에 내 미래 소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거니까 가장 관심사가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적절했던 주제 선정	“우선은 주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이 있을 것 같은 주제는 없을 것 같고...”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거는 개개인의 배경 지식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흥미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있어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로소득자로서 전공의의 자기보호	“저희 인턴 수련 받을 때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희 인턴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셀프 프로텍션 차원에서도... 증권회사나 아니면 보험회사나... 어쨌든 영업의 최우선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꼭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이 자체가 경제·금융에 대한 리터러시를 학생 때부터 그렇게 충족시켜주는 교육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인턴 전공의 저년차 선생님들은, 전체적인 경제인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의사의 경제·금융 지식 부족과 환자피해	“의사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지 않아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청구	“의사들도 잘못된 처방이나 코드를 내서 피해를 보게 되고, 자기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반대	“의사가 아니라 내가 나의 경제생활, 금융생활을 위해서 듣는 강의를 필수로 한다는 게 앞서 얘기해 주셨던 당위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는 선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필수 교육 과목으로 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귀중한 교육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니까...”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찬성	“하지만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대상 필수화 가능성	“프리 테스트 같은 거 봐서 그거 잘 보면 안오고...”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따르는 역효과	“그냥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인증 교육이나 그런 강의들... 그냥 엄청 재미없지만 들어야 하니까 듣는 그런 강의들인데 사실 그런 거는 진짜 직원들도... 저도 마찬

	가지지만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이런 실정이라... 그런 거는 몇 년째 듣지만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이라... 그렇게 하면 학습의 측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무 교육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공의협의회에서는 그런 일회성 강연들을 몇 번 추진해 본 경험들이 있고, 경험상 지속 가능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단발성 이벤트로 끝났고, 단발성 이벤트를 벌이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고, 단발성 이벤트를 기획한다 하면 이런 콘텐츠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대한 반대의견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는 그 척도가 다른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감염 교육이나 cpr 교육처럼 하루 종일 붙잡아놓고 맞출 때까지 굴리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설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건 꼭 알아야겠다고 첫 번째로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일단은 국가 제도의 근간이라는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좋든 싫든 이 시스템, 이 지불 체계에 뭔가 큰 거대한 변혁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의사 면허가 존속되는 기간까지는 시스템 하에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 입장에서는 필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결국에 본인이 얼마큼 내야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려면 이제 이러이러한 제도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나중에 어떤 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든 지불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완전한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

	의 손익 계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1순위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제도라면 모든 임상 의사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계약	"사실은 (전공의들이) 근로계약에 대한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턴 때도 저는 전혀 제 계약서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도 산업안전보건실이 있고 실제로 근무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 상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준수해야 되는데 이런 걸 준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마다 말씀드리는 건 근로계약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전공의는 항상 논란이 되는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굉장히 특수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강의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로계약은 아마 전공의는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조항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결부시켜서 같이 교육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근로계약도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도 실생활에서 다 쓰고 있고 건강보험제도랑도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실무에 있는 의사직 교수진 참여	"건강보험 제도라면 모든 임상 의사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임상에서 일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의 이야기도 강의가 같이 있으면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보험제도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실질적 내용의 강의	"그리고 특히 그런 걸 할 때 역사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환자들한테 이게 어떤 지원이 있고 어떻게 적용

	이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되고 언제 지원이 가능하고...”
짧은 시리즈 강의	“그냥 ‘이번 주는 이겁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15분짜리 하나 이렇게 올려주면 부담 없이 볼 거 같아요. 정해진 날짜에 업로드하면... 유튜버들도 보면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	“투트랙으로 해서 VOD로 제공을 하되,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추첨을 한다든가 해서 기회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기회를 제공해서 소규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과에서 수가제도라든가 보험 관련 이런 내용으로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사보험이나 산재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강의한다고 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아마 수용 가능한 범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자 초청의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연자나 콘텐츠가 있다면 그거(의학 이외의 주제)에 대한 저항감은 어쨌든 OO과에 한해서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방법	“인턴 때는 또 필수과를 돌긴 도니까 그 중 한 과에 협조를 구해서 좀 시간을 낸다든지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가능성	“대면 강의로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감염 관리 교육 같은 거... 과 마다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한 30분 정도씩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모아놓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뭔가 집중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닝 컨퍼런스에 경제적인 것도 가끔씩 하니까 못 넣을 거는 없을 거 같고, 근데 너무 많이는 못할 것 같고 1년에 몇 개 정도... 외부 연사 자리 중에 일부로 넣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강의의 어려움	“시간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공의는 과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경제와 불평등	“경제 불평등 주제를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나...”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교육의 목표가 전반적인 경제학 담론보다는 실제 생활이랑 연관되는 경제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아마 이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의사가 돼서 직접 보게 되는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이 대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 소득이 기대가 되고 또 가계 대출의 부담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약간 그런 감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같이 하다보 면 조금 더 교육 목표에다 좀 더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의 행동경제학	“환자들의 미시적인 경제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의료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경제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의사 환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이나 아니면 치료를 안 받거나 받는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강조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뭔가 경제적 경제나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금융적인 내용보다는 아마 보건학 쪽에 뭔가 경제학적인 담론에 관한 내용이나 아니면 이 지불 체계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가중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

[표 4-1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주제 탐색 결과

주제		초기 코드
교육과정 평가	반응 평가	- 전공의들의 적절한 교육수요
	교수법 평가	- 북마크 기능 추가 - 사례 중심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 일괄 업로드에 따른 부담감 - 적절했던 강의시간
	세부주제 평가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에 대한 흥미 - 적절했던 주제 선정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교육과정의 필요성	-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교육과정의 당위성	- 근로소득자로서 전공의의 자기보호 -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 - 의사의 경제·금융 지식 부족과 환자피해 - 의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청구
	필수교육에 대한 찬반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반대 -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 강의 필수화 찬성 - 일부 대상 필수화 가능성 -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따르는 역효과 -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화에 대한 반대의견
	필수교육이 필요한 세부주제	- 국민건강보험제도 - 근로계약 - 사회복지제도
발전방향	교육의 전달방식	- 실무에 있는 의사직 교수진 참여 - 실질적 내용의 강의 - 짧은 시리즈 강의
	교육의 전달형태	-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 -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 -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방법 - 오프라인 강의의 실현가능성 - 오프라인 강의의 어려움
	추가 교육 희망주제	- 경제와 불평등 -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 - 환자의 행동경제학
	의과대학생 강의	- 보건학, 경제학적 담론, 역사 강조

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경제·금융 교육과정 계획안 및 평가

의사에게 의학지식만 충분하면 다른 분야의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았던 시대가 점차 지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통합적인 사고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한 개인으로서도 삶의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가 바로 경제와 금융이다. 경제와 금융은 의사가 의료시스템 안에서 환자와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바탕 원리이자 한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다. 경제와 금융 지식은 의료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치기반 의료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또 조직의 리더, 보직자, 의사결정권자, 교육자 등 의사가 직업적으로 맡게 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경지식이다. 반대로 경제와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을 때 의사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직업전문성이 결여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의과대학생들은 미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일차의료를 기피하게 되며 재무적인 피로를 호소한다.

이처럼 경제와 금융에 대한 지식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은 일반 성인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의학교육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경제·금융 문해력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교육도 거의 전무하거나 양적 질적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위해 교육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나아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교육을 설계, 수행 및 평가하였다.

1. 사례연구 결과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 선행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제공 주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국내의 경제·금융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공개강좌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Ciemleja et al.의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6가지 요소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깊이는 제공 주체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내용을 풀이하는 관점 역시 교육목표에 따라 차이가 컸다. 해외의 온라인 공개강좌와 의료관련 경제·금융 MBA 교육과정은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의학교육 내의 선행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모두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그 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시작된 배경 역시 서로 상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공통적으로 '금융개념', '의료 체계', '의료 산업', '의료 경영' 영역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할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개인의 재무상태와 관련 있는 경제·금융 문해력의 6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강의가 주를 이루었다. 기본 의학교육 수준의 경제·금융 교육과정에는 분석 대상으로 전문의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학생 주도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금융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와 의료시스템에 관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설문과 FGD를 통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중점으로 두되 연구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경제·금융 교육과정 세부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타당화 설문과 FGD를 통해 필요성, 교육목표, 도달역량, 세부주제 및 각 수준에서의 구현 방식과 교수법에 대해 탐색하였다.

타당화 설문 결과를 통해 기본의학교육 수준에서 경제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들은 근로자로서 의사 개인 및 의료시스템의 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역할을 위한 경제교육은 긍정하였지만,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를 위한 경제교육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상 경제학적인 지식을 임상 현장에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 부분이 현재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환자-의사 관계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Longitudinal integrated clekship)과 같은 다른 교육 분야와 중복되어 필요성을 덜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도달역량에 관한 결과는 교육목표에 관한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패널들은 학생들이 수강 후 주어진 상황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지만,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임상 상황과 연관 짓는 수준까지는 필요없을 것으로 바라보았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타당성을 확보한 7개의 주제 중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세금', '부와 행복'의 3개의 주제가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라는 교육목표에 해당하였으며,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의료보험체계',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의 3가지 주제는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라는 교육목표에 해당하였다. 교육목표 중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

해 증진'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해당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사회복지제도'는 세부주제로서 유의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제도'라는 주제가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개설형태 중 대상 학년에 관해서는 의예과 2학년, 형식으로는 특강 형식, 그리고 강의 분류로는 교양필수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상 경험이 없는 시기에 특강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는 다른 교육목표와 달리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를 위한 이해 증진이라는 목표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의예과 시기는 적정 강의시간이 평균 10시간을 초과하여 다른 학년보다 길었고, 강의형식도 특강형식이 가장 많았던 점은 동일하지만 3~4주 Block이나 학기 단위, 더 나아가서는 1년 단위 강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의예과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의학과 4학년은 환자에 대한 경험이 생긴 이후이자 의과대학생으로서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전공의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단계로, 미래의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 형식의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설문에서 타당화한 기본의학교육 수준의 교육과정을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시행했던 FGD에서는 교수법에 대한 내용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 세부주제를 다루었다. 교수법에 대한 논의 중 핵심인 부분은 전공의들의 근무로 인한 시간적인 제약과 업무 공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전공의들의 짧은 집중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결론적으로 VOD 형식을

채택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채널인 유튜브를 이용하되 길이를 짧게 만들어 핵심 사항을 여러 번에 나누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주제에 관해서는 주제 면에서는 기본의학교육 수준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었다.

3.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 도출

타당화 설문과 FGD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기본의학교육과 졸업후의학교육의 두 수준으로 나누었으며, 교육목표는 수준에 따라 확장되되 세부주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설계하였다. 교육목표와 세부주제는 타당화 설문과 FGD 결과를 반영하되 피교육자의 경험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 배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최종안을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전공의 4-5년의 현행 의학교육 시스템에 맞추어 구현하기 위해 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설계

제반 여건 상 모든 강의를 수행하기는 어려워,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중 5개의 세부주제에 대해 파일럿 강의를 수행하였다. 졸업후의학교육 수준의 강의인 만큼 교수법에 관해서는 FGD에서 제시되었던 VOD 형식, 높은 접근성, 짧은 강의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였다.

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커크패트릭 평가모형에 맞추어 설계한 평가 설문 결과 본 교육과정에 대한 보통 이상의 흥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식의 변화, 그리고 보통 이상의 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FGD를 통해서 설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교육과정 평가에 관해서는 설문 결과에서 반응/만족도를 평가하는 1단계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던 것이 적절한 교육 수요를 예상하고 세부주제에 대해서 동의했던 패널들의 의견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세부주제 중에서는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가 전공의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것이라는 패널들의 의견이 설문 평가에서 근소하지만 높은 흥미도 및 전반적으로 더 높은 조회수로 확인되었다. 강의 시간 역시 FGD와 설문에서 모두 적절했던 것으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전공의들의 흥미와는 별개로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강의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FGD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본 일부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본 일부는 강의를 제공하되 관심 있는 사람에 한해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제도', '근로계약', '사회복지제도'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응/만족도와 당위성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개인의 건전한 경제생활에 관련된 강의는 필수교육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육대상자의 높은 관심으로 인해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발전방향으로는 타당화 FGD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실무를 아는 강사의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강의가 재차 강조되었고, 짧은 분량의 강의에 대한 요구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평가 FGD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는데, 타당화 FGD에서 오프라인 강의에 대한 언급 없이 온라인 강의에 대한 요구만 있었던 것과 대비되었다.

한편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교육목표를 보다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세부주제에 대한 강의 요구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당화 설문에서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는 교육목표가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던 것과 대조되었다. 이는 타당화 설문에서 해당 교육목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적절한 응답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거나, 혹은 FGD가 진행됨에 따라 FGD 자체가 갖고 있는 학습효과가 발현되어 의견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타당화 설문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세부주제로서 유의성의 확보하였던 점과, FGD의 후반부에 위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으로 추론해볼 때, 두 가지 요소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교육과정은 향후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의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교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 개인의 재무적 안녕을 달성하여 건실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의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높이고, 의사들로 하여금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제·금융 교육과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은 여타의 의료 관련 직역 종사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개발에 추가로 활용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육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방식으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 뒤 평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육이 일개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평가에 참여한 전공의의 수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시 의사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는 사회가 의사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담아내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사 및 행정적 제반 여건 상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실제로 수행하고 평가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의과대학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을 설계, 수행하고 평가하여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전체를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의학교육-졸업후의학교육 연계 경제·금융 교육과정 구현 방안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수준을 나누어 나선형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세분화 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경우, 마찬가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세부주제에 대한 강의를 수행함과 동시에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세부주제에 대한 강의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과정을 여타 의료관련 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순원. (2010). 다문화사회 세계시민교육의 평생교육적 전망 TT - Lifelong Education Prospect of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평생교육학연구, 16(2), 69 - 91. http://www.riss.kr/link?id=A82363997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a). (2023.03.04). 의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에서 2023년 3월 4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b). (2023.03.0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s://www.law.go.kr/법령/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에서 2023년 3월 4일 인출.

금융감독원. (2023). (2023.03.18).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https://www.fss.or.kr/edu/fem/eduProgram/view.do?menuNo=300003&programSlno=7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명지대학교. (2019). (2023.03.18). 금융교육특강.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웹사이트 https://bangmok.mju.ac.kr/bangmok/168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YmFuZ21vayUyRjM1OCUyRjQxNzU3JTJGYXJ0Y2xWaWV3LmRvJTNG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BJUI4JTg4JUVDJTlDJUI1JUVBJUI. 1990, 9114.

서민금융진흥원. (2023). (2023.03.18).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웹사이트
https://edu.kinfa.or.kr/academy/course/lectureInfo.do#none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숙명여자대학교. (2018). (2023.03.18). 금융경제 기초. K-MOOC 웹사이트
http://www.kmooc.kr/courses/course-v1:SookmyungK+SM_soc_006k+2018_01SM_01/about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이해주. (2010). 시민교육의 의미와 방법. 시민교육 현장지침서, 36 - 4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023). (2023.03.04). 연도별 국가시험 합격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웹사이트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 에서 2023년 3월 4일 인출.

한국은행. (2023). (2023.03.18). 청소년 경제강좌. 한국은행 웹사이트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90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ACGME. (2017). Clinically-Driven Standards | ACGME Common Program Requirements. 1 - 27.
https://www.acgme.org/Portals/0/PFAssets/ProgramRequirements/CPRResidency2020.pdf%0Ahttp://www.acgme.org/outcome/comp/GeneralCompetenciesStandards21307.pdf%0Ahttps://acgmecommon.org/2017_requirements

Agarwalla, S. K., Barua, S. K., Jacob, J., & Varma, J. R. (2015). Financial Literacy among Working Young in Urban India. World Development, 67(2013), 101 - 109.

https://doi.org/10.1016/j.worlddev.2014.10.004

Ahmad, F. A., White, A. J., Hiller, K. M., Amini, R., & Jeffe, D. B. (2017). An assessment of residents' and fellows' personal finance literacy: an unmet medical education need.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8, 192 - 204. https://doi.org/10.5116/ijme.5918.ad11

Atkinson, A., & Messy, F.-A. (2012).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esults of the OECD infe pilot stud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15(15), 1 - 73.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 - 86. https://doi.org/10.1177/0748175613513808

Baker, A. (2001). Crossing the quality chasm: a new health system for the 21st century (Vol. 323, Issue 7322). British Medical Journal Publishing Group.

Bar-Or, Y. D., Fessler, H. E., Desai, D. A., & Zakaria, S. (2018).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Curriculum in Personal Finance for Medical Fellows. Cureus, 10(1), 1 - 6. https://doi.org/10.7759/cureus.2013

Boelen, C., Pearson, D., Kaufman, A., Rourke, J., Woollard, R., Marsh, D. C., & Gibbs, T. (2016). Producing a socially accountable medical school: AMEE Guide No. 109. Medical Teacher, 38(11), 1078 - 1091. https://doi.org/10.1080/0142159X.2016.1219029

Busari, J. O., Berkenbosch, L., & Brouns, J. W. (2011). Physicians as managers of health care delivery and the implications for

postgraduate medical training: A literature review.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23(2), 186 - 196. https://doi.org/10.1080/10401334.2011.561760

Cha, J., Kim, S., Kim, P. W., Lee, H., Ko, M. M., Jang, S., & Lee, M. S. (2022). Development of the Korean Medicine Core Outcome Set for Stroke Sequelae: Herbal Medicine Treatment of Elderly Patients With Stroke Sequelae in Primary Clinics. Frontiers in Pharmacology, 13(April), 1 - 10. https://doi.org/10.3389/fphar.2022.868662

Chen, H., & Volpe, R. P. (2002).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Services Review, 11(3), 289 - 307.

Choe, G.-S. (2006). 전공의 수련현황 및 개선방향.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35(4), 41 - 56. http://journal.um-surabaya.ac.id/index.php/JKM/article/view/2203

Ciemleja, G., Lace, N., & Titko, J. (2014). Financial literacy as a prerequisite for citizens' economic security: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Journal of Security and Sustainability Issues, 4(1), 29 - 40. https://doi.org/10.9770/jssi.2014.4.1(3)

Crowley, R. M., & Swan, K. (2018). What kind of economic citizen?: An analysis of civic outcomes in U.S. Economics curriculum and instruction materials. Education Sciences, 8(3). https://doi.org/10.3390/educsci8030095

Dhaliwal, G., & Chou, C. L. (2007). A brief educational intervention in personal finance for medical residents.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22(3), 374 - 377.
https://doi.org/10.1007/s11606-006-0078-z

Distribution, G., & Workforce, P. (2009). What Influences Medical Student & Resident Choices ? The Robert Graham Center: POlicy Studies in Family Medicine and Primary Care, 9 - 15.

EdX. (2023). (2023.03.18). Healthcare Finance. edX 웹사이트 https://www.edx.org/course/healthcare-finance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Falcone, R. E., & Satiani, B. (2008). Physician as hospital chief executive officer. Vascular and Endovascular Surgery, 42(1), 88 - 94. https://doi.org/10.1177/1538574407309320

Fink, A., Kosecoff, J., Chassin, M., & Brook, R. H. (1984). Consensus methods: characteristics and guidelines for us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9), 979 - 983.

Frederic S Mishkin. (2008). The importance of economic education and financial literacy.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speech/mishkin20080227a.htm

FSA, F. S. A. (2005).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 exploratory study. Consumer Research 37,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June, 75.
http://www.fsa.gov.uk/pubs/consumer-research/crpr37.pdf

Garrett, C. C., Doonan, R. L., Pyle, C., & Azimov, M. B. (2022). Student loan debt and financial education: a qualitative analysis of resident perceptions and implications for resident well-being.

Medical Education Online, 27(1).
https://doi.org/10.1080/10872981.2022.2075303

Gnan, E., Silgoner, M. A., & Weber, B. (2007).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Concepts, goals and measurement. Monetary Policy & the Economy Q, 3(1), 28 - 49.

Gray, E., & Lorgelly, P. K. (2010). Health economics education in undergraduate medical degrees: An assessment of curricula content and student knowledge. Medical Teacher, 32(5), 392 - 399.
https://doi.org/10.3109/01421590903480113

Hastings, J. S., Madrian, B. C., & Skimmyhorn, W. L. (2013). FINANCIAL LITERACY, FINANCIAL EDUCATION AND ECONOMICOUTCOMES. Annual Review of Economics, 5, 347.
https://doi.org/10.1146/ANNUREV-ECONOMICS-082312-125807

Hayhoe, C. R., Leach, L., Allen, M. W., & Edwards, R. (2005). Credit cards held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6(1), 1 - 10.

Heater, D. (2004). Citizenship: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Hung, A., Parker, A. M., & Yoong, J. (2011). Defining and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SSRN Electronic Journal.
https://doi.org/10.2139/ssrn.1498674

Janssen, P. F., Brölmann, H. A. M., & Huirne, J. A. F. (2011). Recommendations to Prevent Urinary Tract Injuries During Laparoscopic Hysterectomy: A Systematic Delphi Procedure Among Experts. Journal of Minimally Invasive Gynecology, 18(3), 314 - 321.

https://doi.org/10.1016/j.jmig.2011.01.007

Jappelli, T. (2010). Economic literac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conomic Journal, 120(548), 429 - 451. https://doi.org/10.1111/j.1468-0297.2010.02397.x

Jayakumar, K. L., Larkin, D. J., Ginzberg, S., & Patel, M. (2017).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U.S. Medical Students. MedEdPublish, 6(1). https://doi.org/10.15694/MEP.2017.000035

Jelley, H. M. (1958). A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money management understandings of twelfth-grade students. University of Cincinnati.

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ial Literacy. (2008). Mission of Jump$tart® Financial Smarts for Students and 2008 Jump$tart High School Senior Questionnaire. http://www.jumpstartcoalition.org

Kerr, D. (1999). Citizenship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England: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NFER.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 London, April, 1 - 31.

Khatana, S. A. M., Patton, E. W., & Sanghavi, D. M. (2017). Public Policy and Physician Involvement: Removing Barriers, Enhancing Impact.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130(1), 8 - 10. https://doi.org/10.1016/j.amjmed.2016.07.020

Kiger, M. E., & Varpio, L. (2020). Thematic analysis of qualitative data: AMEE Guide No. 131. Medical Teacher, 42(8), 846 - 854. https://doi.org/10.1080/0142159X.2020.1755030

Kim, J. J. (2011). Planning a physician assistant system for Korea.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12), 1240 - 1244. https://doi.org/10.5124/jkma.2011.54.12.1240

Kim, K. J., Park, J. H., Lee, Y. H., & Choi, K. (2013). What is different about medical students interested in non-clinical careers? BMC Medical Education, 13(1), 9 - 12. https://doi.org/10.1186/1472-6920-13-81

Kim, K. T., Anderson, S. G., & Seay, M. C. (2019). Financial Knowledge and Short-Term and Long-Term Financial Behaviors of Millennial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40(2), 194 - 208. https://doi.org/10.1007/s10834-018-9595-2

Kim, S. (2020). Delphi 기법을 활용한 학위연계형 고숙련마이스터 과정의 만족도 평가 문항 개발.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0(5), 163 - 173.

Lawshe, C. H., & others.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 - 575. 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Lin, J. T., Bumcrot, C., Ulicny, T., Mottola, G., Walsh, G., Ganem, R., Kieffer, C., & Lusardi, A. (2019). The state of U.S. financial capability: The 2018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udy. FINRA Investor Education Foundation, June, 1 - 43. https://www.usfinancialcapability.org/downloads/NFCS_2018_Report_Natl_Findings.pdf%0Ahttps://gflec.org/initiatives/national-financial-capability-study/

Lo Prete, A. (2018). Inequality and the finance you know: does

economic literacy matter? Economia Politica, 35(1), 183 – 205. https://doi.org/10.1007/s40888-018-0097-3

Losito, B., & Mintrop, H. (2001). The teaching of civic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157 – 173.

Lusardi, A., & Mitchelli, O. (2007).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reparedness: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financial education. Business Economics, 42(1), 35 – 44. https://doi.org/10.2145/20070104

Lusardi, A., & Tufano, P. (2015). Debt literacy, financial experiences, and overindebtednes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14(4), 332 – 368. https://doi.org/10.1017/S1474747215000232

Meleca, J. B., Tecos, M., Wenzlick, A. L., Henry, R., & Brewer, P. A. (2014). A Medical Student Initiated Elective Course in Business and Finance: A Needs Analysis and Pilot. Medical Student Research Journal, 4(Fall), 18 – 23.

Mizell, J., Thrush, C., & Steelman, S. (2019). The Business of Medicine: A Course to Address the Deficit in Financial Knowledge of Fourth-Year Medical Students. The Journal of Medical Practice Management: MPM, 34(6), 344.

Morris, P., Cogan, J. J., & Lid, M. (2013). A comparative overview: Civic education across the six societies. Civic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ase Studies across Six Societies, 35, 167 – 189. https://doi.org/10.4324/9780203951828-15

Mottola, G. R. (2014). The Financial Capability of Young Adults

– A Generational View. FINRA Foundation Financial Capability Insights, March(March), 1 - 12.

New York University Wagner Graduate School of Public Service. (2022). (2023.03.18). Financial Management for Health Care Orgs. NYU Wagner 웹사이트 https://wagner.nyu.edu/education/courses/financial-management-for-health-care-orgs-i-financial-management-and-budgeting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OECD, O. for E. C.-O. and D. (2012). PISA 2012 Assessment and Analytical Framework: Mathematics, Reading, Science, Problem Solving and Financial Literacy.

Palter, V. N., MacRae, H. M., & Grantcharov, T. P. (2011). Development of an objective evaluation tool to assess technical skill in laparoscopic colorectal surgery: A Delphi methodology. American Journal of Surgery, 201(2), 251 - 259. https://doi.org/10.1016/j.amjsurg.2010.01.031

Park Jung Han Kim Kyung Hwan, J. H. R. L. J. Y. (1999). A National Sample Survey of Medical Students about Their Perception and Evaluation on Medical Study, Career Plan, and Medical Care System: Part 1. Survey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Sample. Korean J Med Educ, 11(2), 339 - 363. https://doi.org/10.3946/kjme.1999.11.2.339

Persad, G. C., Elder, L., Sedig, L., Flores, L., & Emanuel, E. J. (2008). The Current State of Medical School Education in Bioethics, Health Law, and Health Economics.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36(1), 89 – 94. https://doi.org/10.1111/j.1748-720X.2008.00240.x

Phillips, J. P., Petterson, S. M., Bazemore, A. W., & Phillips, R. L. (2014). A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l student debt and primary care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nals of Family Medicine, 12(6), 542 – 549. https://doi.org/10.1370/afm.1697

Phillips, J. P., Weismantel, D. P., Gold, K. J., & Schwenk, T. L. (2010). Medical student debt and primary care specialty intentions. Family Medicine, 42(9), 616 – 622.

Potrich, A. C. G., Vieira, K. M., & Mendes-Da-Silva, W. (2016). Development of a financial literacy model for university students. Management Research Review, 39(3), 356 – 376. https://doi.org/10.1108/MRR-06-2014-0143

Relman, A. S. (1998). Education to defend professional values in the new corporate age. Academic Medicin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73(12), 1229 – 1233.

Remund, D. L. (2010). Financial literacy explicated: The case for a clearer definition in an increasingly complex econom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4(2), 276 – 295. https://doi.org/10.1111/j.1745-6606.2010.01169.x

Resnicow, K., Patel, M. R., Mcleod, M. C., Katz, S. J., & Jagsi, R. (2019). Physician attitudes about cost consciousness for breast cancer treatment: differences by cancer sub-specialty. 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73(1), 31 – 36. https://doi.org/10.1007/s10549-018-4976-7

Rohlfing, J., Navarro, R., Maniya, O. Z., Hughes, B. D., &

Rogalsky, D. K. (2014). Medical student debt and major life choices other than specialty. Medical Education Online, 19(1). https://doi.org/10.3402/meo.v19.25603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2023). (2023.03.18). CanMEDS better standards, better physicians, better car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Canada 웹사이트 royalcollege.ca/rcsite/canmeds/canmeds-framework-e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Seo, J. H., Kim, H. J., Kim, B. J., Lee, S. J., & Bae, H. O. (2015). Educational and relational stressors associated with burnout in Korean medical students. Psychiatry Investigation, 12(4), 451 - 458. https://doi.org/10.4306/pi.2015.12.4.451

Sevim, N., Temizel, F., & Sayilir, Ö. (2012). The effects of financial literacy on the borrowing behaviour of Turkish financial consum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6(5), 573 - 579. https://doi.org/10.1111/j.1470-6431.2012.01123.x

Sharma, A. N., & Rojek, N. W. (2020). Assessing the financial literacy of dermatology residents: A nationwide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83(2), 638 - 640. https://doi.org/10.1016/J.JAAD.2019.10.054

Skochelak, S. E., Hawkins, R. E., Lawson, L. E., Starr, S. R., Borkan, J. M., & Gonzalo, J. D. (2017). Health systems science. Elsevier.

Stobo, J., Kohen, J., Kimball, H., LaCombe, M., Schechter, G., & Blank, L. (1995). (1995).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Project Professionalism. Philadelphia, PA: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Swan, K., Barton, K. C., Buckles, S., Burke, F., Charkins, J., Grant, S. G., Hardwick, S. W., Lee, J., Levine, P., Levinson, M., & Others. (2013). The College, Career, and Civic Life (C3) framework for social studies state standards: Guidance for enhancing the rigor of K-12 civics, economics, geography, and history.

Sweiti, H., Wiegand, F., Bug, C., Vogel, M., Lavie, F., Winiger-Candolfi, I., & Schuier, M. (2019). Physicia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ir roles, motivations, and perspectives. Drug Discovery Today, 24(9), 1865 - 1870. https://doi.org/10.1016/j.drudis.2019.05.021

Tersine, R. J., & Riggs, W. E. (1976). The delphi technique: A long-range planning tool. Business Horizons, 19(2), 51 - 56. https://doi.org/10.1016/0007-6813(76)90081-1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9). (2023.03.18). Financial Management of Health Institutions.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웹사이트 https://apps.wharton.upenn.edu/syllabi/?term=202310&course=HCMG849001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University of Florida, & College of Public Health & Professions. (2019). (2023.03.18). Fundamentals of Healthcare Finance. University of Florida College of Public Health & Professions 웹사이트 https://hsrmp.phhp.ufl.edu/wordpress/files/2019/01/HSA-5174-Spring-2019-Robinson.pdf 에서 2023년 3월 18일 인출.

Veronesi, G., Dorn, P., Dunning, J., Cardillo, G., Schmid, R. A., Collins, J., Baste, J. M., Limmer, S., Shahin, G. M. M., Egberts, J. H., Pardolesi, A., Meacci, E., Stamenkovic, S., Casali, G., Rueckert, J. C., Taurchini, M., Santelmo, N., Melfi, F., & Toker, A. (2018). Outcomes from the Delphi process of the Thoracic Robotic Curriculum Development Committee. European Journal of Cardio-Thoracic Surgery, 53(6), 1173 - 1179. https://doi.org/10.1093/ejcts/ezx466

Wang, A., Bera, K., Sharma, A. N., Nguyen, B.-N., Rojek, N. W., & Bera, R. (2021). Nationwide Needs Assessment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Among Psychiatry Residents. Academic Psychiatry 2021, 1 - 2. https://doi.org/10.1007/S40596-021-01498-9

Wear, D., & Castellani, B. (2000).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Curriculum matters. Academic Medicine, 75(6), 602 - 611. https://doi.org/10.1097/00001888-200006000-00009

Whelan, J. R., Lingley, A. J., Lanoue, D., Lewis, N., & Haykal, K.-A. (2021). Financial Literacy and Interest in Canadian Undergraduate Medical Students. MedEdPublish, 10(1), 1 - 13. https://doi.org/10.15694/mep.2021.000026.1

Witek, M., Siglin, J., Malatesta, T., Snook, A., Gressen, E., Rudoler, S., Bar-Ad, V., & Fisher, S. (2014). Is Financial Literacy Necessary for Radiation Oncology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Oncology, Biology, Physics, 90(5), 986 - 987. https://doi.org/10.1016/J.IJROBP.2014.08.010

You, J., Kim, W., Lee, H. S., & Kwon, M. (2021). Best content

standards in sports career education for adolescents: A delphi survey of Korean professional views. Sustainability, 13(12), 1 - 13. https://doi.org/10.3390/su13126566

부 록

[부록 1]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설문지
[부록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1회차 평가 설문지
[부록 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2회차 평가 설문지
[부록 4]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부록 5]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부록 6]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분류에 관한 타당화 설문 결과
[부록 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질문 구성
[부록 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사 상세
[부록 9]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세부강의계획
[부록 10]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세부강의계획
[부록 11] 전공의를 위한 대출 세부강의계획
[부록 12]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부록 13]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부록 14]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대표 사진
[부록 15]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대표 사진
[부록 16] 전공의를 위한 대출 대표 사진
[부록 17]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1)
[부록 18]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2)
[부록 19]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대표 사진
[부록 2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질문 구성

[부록 1]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설문지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 개발 설문지

경제 및 금융 교육은 개인의 삶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교육목표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에서는 건전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의사를 양성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진료현장에서 만나는 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라는 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경제 및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향후 서울의대 교육과정에 도입할 경제·금융 교과목을 개발하기 위함이며, 수렴된 의견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문항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I 개인 변인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① 의과대학 학생 ② 인턴
③ 전공의 ④ 교수
⑤ 기타

2. 1번에서 '전공의'와 '교수'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전공을, '기타'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직업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경제·금융 관련 지식 및 배경

3. 본인은 경제·금융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 )

전혀 없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많음
1	2	3	4	5	6

4. 경제·금융에 관한 기사나 글을 찾아서 읽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① 한 달에 한 번　　② 일주일에 한 번
③ 일주일에 두세 번　　④ 매일

5-1. 개인 생활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6

5-2. 개인 생활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5-3. 개인 생활에서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6-1. 직업 활동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도움이 됨
1	2	3	4	5	6

6-2. 직업 활동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필요 없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6-3. 직업 활동에서 필요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Ⅲ 경제·금융 교과목 개발

7.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에 관한 각 내용을 0~100점으로 평가해주십시오.

항목	낮음	높음	점수
중요도	0 ~	100	
필요도	0 ~	100	
시급도	0 ~	100	

8.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의 교육목표로서 아래 항목의 적합도를 평가해주십시오.

항목	적합도 (1 ~ 6)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 함양	
임상 의사로서 만나는 환자들에 대한 이해 증진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 추구	

전혀 적합하지 않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적합함
1	2	3	4	5	6

9.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역량으로서 아래 항목의 적합도를 평가해주십시오.

항목	적합도 (1 ~ 6)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문제와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경제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 상황을 기술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행위에 따른 기대 수익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개인 및 사회의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계층의 심리와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	

전혀 적합하지 않음		——— 보통 정도임 ———			매우 적합함
1	2	3	4	5	6

10.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의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개설 형태를 기입해주십시오.

		의예과 1	의예과 2	의학과 1	의학과 2	의학과 3	의학과 4
수강학년 (√) ** 중복가능							
수강시간 (시간) ** 1주일에 2시간씩 4주면 8시간으로 기입							
수강형식 (√)	특강 형식						
	3~4 주 Block						
	학기 단위						
	1년 기간						

수업 분류 (√) ** 중복가능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

10-1.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의 개설 형태에 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11.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의 주제에 따른 중요도, 필요도, 필요 수업시간을 평가해 주십시오. (필요 없을 시 해당 주제는 모두 0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주제	개요	중요도 (0~100)	필요도 (0~100)	필요시간 (시간)
생애주기와 자산관리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규모, 소비패턴, 노후대비 전략			
저축	저축의 필요성, 저축계획			
세금	세금의 구분, 종류, 특징, 관련법령			
연금	연금의 종류, 특징			
개인보험	개인보험의 종류, 특징, 실손보험			
화폐와 이자율	화폐의 시간가치, 단리/복리			
위험과 수익률	위험의 정의, 분산투자, 포트폴리오 이론, 레버리지			
주식투자	기본적 분석, 상대가치법, 절대가치법, 분할매수/매도			
기초회계	재무제표, 회계항등식, 현금흐름표의 직접법/간접법			
통화정책과 통화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 통화정책의 수단, 중앙은행의 역할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률의 측정, 완전고용, 인플레이션의 측정(CPI, GDP deflator), 필립스 곡선			
소득과 자산	유량과 저량, 대한민국 국민의 소득과 자산의 평균 및 분포			
부와 행복	자산 및 소득과 행복의 관계, 행복의 결정조건			
의사의 다양한 진로와 소득	개원/봉직의/대학교수/언론인/창업/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업 소개, 기대소득과 각 진로의 장단점 소개			
국가예산과 의료예산	국가예산의 규모, 의료예산의 규모, 의료예산의 수입원, 분배, 서울대병원의 예산/인력/순이익			
의료보험체계	의료보험의 가입자/보험자/공급자, 보장률, 급여/비급여, 문제점, 다른 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사회복지제도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수익사이클 관리	매출 관리, 현금 관리, 비용통제			
헬스케어 산업분석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 동향, 원격의료, MSO, 인공지능, 의료정보			
의료서비스 가격결정	의료서비스의 비용, 가격결정 모델			
근로계약과 연봉협상	근로계약의 형태, 노동법, 의사법, 전공의법, 연봉협상의 기술			
경제학적 사고와 의사결정	행동경제학, 휴리스틱			

12. 의과대학 경제·금융 교과목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 설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은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이승희 (lshcho@snu.ac.kr)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1회차 평가 설문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경제/금융 지식은 건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자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업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올리면서 사회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직업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희소한 자원인 의료 서비스의 관리자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량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경제/금융교육은 양과 질, 그리고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의사들의 낮은 비용-민감성, 불안정한 개인 재무상태, 그리고 편향된 전공 선택 등 의료시스템과
의료인 개인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생활에 관한 문제들 및 직업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의료 시스템의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어 전공의로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들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작 중에 있으며, 수강하신 VOD 강의는 '전공의를 위한 경제학' 프로그램 중 파일럿 강의에 해당합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식과 행동 변화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수렴된 의견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문항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12

서울대학교 병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필수항목

개인 변인

1.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인턴
- ◯ 레지던트 1년차
- ◯ 레지던트 2년차
- ◯ 레지던트 3년차
- ◯ 레지던트 4년차
- ◯ 전임의
- ◯ 교수
- ◯ 기타: _____

2. 2. 1번에서 '전공의'와 '교수'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전공을, '기타'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직업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금융 관련 지식 및 배경

3. 3. 본인은 경제•금융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없음					매우 많음
	1	2	3	4	5	6

4. 4. 경제•금융에 관한 기사나 글을 찾아서 읽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한 달에 한 번
- 일주일에 한 번
- 일주일에 두세 번
- 매일
- 찾아서 읽지 않는다

5. 5. **개인 생활**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필요 없음

1

2

3

4

5

6

매우 필요함

6. 6. **직업 활동**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필요 없음

1

2

3

4

5

6

매우 필요함

반응 및 만족도

7. 7. 강의는 **흥미**로웠습니까? *

1 (전혀 흥미롭지 않음) ~ 6 (매우 흥미로움)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8. 8. **강의의 내용**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프로그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9. 9. **강의의 방식**은 **적절**하였습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10. 10. **강사의 준비 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

1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 ~ 6 (매우 잘 준비되었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11. 11. **강의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	◯	◯	◯	◯	◯
대출	◯	◯	◯	◯	◯	◯
연말정산	◯	◯	◯	◯	◯	◯

12. 12-1. **'자산관리'**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30분 미만
- ◯ 30분-1시간
- ◯ 1시간-2시간
- ◯ 2시간-3시간
- ◯ 3시간 이상

13. 12-2. **'대출'**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30분 미만
- ◯ 30분-1시간
- ◯ 1시간-2시간
- ◯ 2시간-3시간
- ◯ 3시간 이상

14. 12-3. **'연말정산'**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30분 미만
- 30분-1시간
- 1시간-2시간
- 2시간-3시간
- 3시간 이상

지식 변화

15. 13. 강의를 **듣기 전** 각 주제에 대한 귀하의 지식은 어떠하였습니까? *
1 (전혀 없었음) ~ 6 (매우 충분하였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16. 14. 강의를 **듣고 난 후** 각 주제에 대한 귀하의 지식은 어떠합니까? *
1 (전혀 없음) ~ 6 (매우 충분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행동 변화

17. 15. 배운 내용을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

1 (전혀 생기지 않았음) ~ 6 (매우 적절하게 생겼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18. 16. 배운 내용을 경제생활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알지 못함) ~ 6 (매우 잘 알고 있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자산관리						
대출						
연말정산						

자유 의견

19.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은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이승희(lscho@snu.ac.kr)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부록 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2회차 평가 설문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파일럿 프로그램 평가 설문지 (2)

경제/금융 지식은 건전한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자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직업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올리면서 사회에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한편, **직업적 측면**에서는 환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를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희소한 자원인 의료 서비스의 관리자로서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고민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량을 달성하기에는 현재 의과대학 및 병원에서 제공되는 경제/금융교육은 양과 질, 그리고 다루는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의사들의 낮은 비용-민감성, 불안정한 개인 재무상태, 그리고 편향된 전공 선택 등 의료시스템과
의료인 개인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 및 금융생활에 관한 문제들 및 직업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의료 시스템의 경제적인 문제를 모두 다루어 전공의로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들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수강하신 강의는 이전에 배포되었던 강의와 연속되는 후속 강의**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해당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식과 행동 변화를 평가하기 위함이며, 수렴된 의견은 교육과정의 개발과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문항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3

서울대학교 병원 교육인재개발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 필수항목

개인 변인

1. 1-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인턴
- ◯ 레지던트 1년차
- ◯ 레지던트 2년차
- ◯ 레지던트 3년차
- ◯ 레지던트 4년차
- ◯ 전임의
- ◯ 교수
- ◯ 기타: _____

2. 1-2. 1번에서 '전공의'와 '교수'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전공을, '기타'로 답하신 경우에는 귀하의 직업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 1월에 배포되었던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중 수강하신 강의가 있습니까? *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수강하였음	수강하지 않았음
자산관리	◯	◯
대출	◯	◯
연말정산	◯	◯

경제•금융 관련 지식 및 배경

4. 3. 본인은 경제•금융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없음
1	◯
2	◯
3	◯
4	◯
5	◯
6	◯
	매우 많음

5. 4. 경제•금융에 관한 기사나 글을 찾아서 읽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한 달에 한 번
- 일주일에 한 번
- 일주일에 두세 번
- 매일
- 찾아서 읽지 않는다

6. 5. **개인 생활**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필요 없음					매우 필요함
	1	2	3	4	5	6

7. 6. **직업 활동**에서 경제•금융 지식 및 경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전혀 필요 없음

1

2

3

4

5

6

매우 필요함

반응 및 만족도

8. 7. 강의는 **흥미**로웠습니까? *

1 (전혀 흥미롭지 않음) ~ 6 (매우 흥미로움)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9. 8. **강의의 내용**은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프로그램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10. 9. **강의의 방식**은 **적절**하였습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11. 10. **강사의 준비 수준**은 어떠하였습니까? *

1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 ~ 6 (매우 잘 준비되었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12. 11. **강의 시간**은 적절하였습니까? *

1 (전혀 적절하지 않음) ~ 6 (매우 적절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	◯	◯	◯	◯	◯
수가제도:사례	◯	◯	◯	◯	◯	◯
민영보험	◯	◯	◯	◯	◯	◯

13. 12-1. **'수가제도의 기본'**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30분 미만
- ◯ 30분-1시간
- ◯ 1시간-2시간
- ◯ 2시간-3시간
- ◯ 3시간 이상

14. 12-2.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 30분 미만
- ◯ 30분-1시간
- ◯ 1시간-2시간
- ◯ 2시간-3시간
- ◯ 3시간 이상

15. 12-3. **'민영보험제도'** 강의의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 30분 미만
- 30분-1시간
- 1시간-2시간
- 2시간-3시간
- 3시간 이상

지식 변화

16. 13. 강의를 **듣기 전** 각 주제에 대한 귀하의 지식은 어떠하였습니까? *
1 (전혀 없었음) ~ 6 (매우 충분하였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17. 14. 강의를 **듣고 난 후** 각 주제에 대한 귀하의 지식은 어떠합니까? *
1 (전혀 없음) ~ 6 (매우 충분함)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행동 변화

18. 15. 배운 내용을 경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

1 (전혀 생기지 않았음) ~ 6 (매우 적절하게 생겼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19. 16. 배운 내용을 경제생활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1 (전혀 알지 못함) ~ 6 (매우 잘 알고 있음)

행당 한 개의 타원형만 표시합니다.

	1	2	3	4	5	6
수가제도:기본						
수가제도:사례						
민영보험						

자유 의견

2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학'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실 분은 서울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 이승희(lscho@snu.ac.kr)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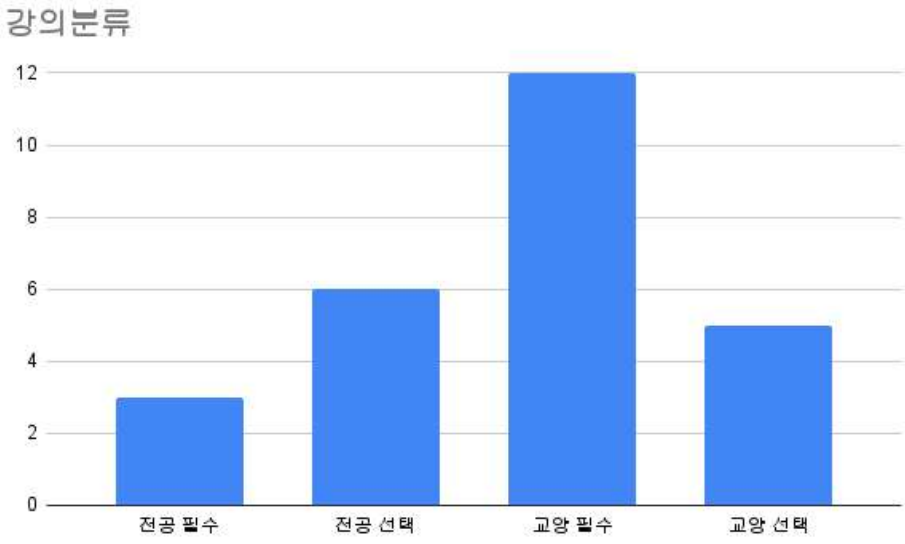
[부록 4]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영역	명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K-MOOC)
1. 투자	- 대학생을 위한 재테크	- 채권 투자 - 이자율의 기간 구조 -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초 -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 주식의 가치평가 - 파생상품의 이해
2. 저축-대출	- 정책금융 길라잡이 - 똑똑한 대학생의 신용 및 부채 관리 방법 - 주택금융의 이해	- 저축과 소비
3. 개인 재무관리	-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생애주기 - 대학생을 위한 금융/저축/투자 - 대학생과 금융생활	-
4. 경제학적 문제	- 저성장과 금융시장 - 돈과 행복 그리고 취업 - 한국경제구조에의 직업선택과 신용	- 거시경제와 화폐시장
5. 금융 개념	- 은행산업의 특성과 역할 -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지식 - 포용금융과 금융혁신	- 금융이란 무엇인가? - 화폐와 이자율 - 화폐의 시간 가치 - 위험과 수익률
6. 금융서비스	-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
8. 의료 체계	-	-
9. 의료 산업	-	-
10. 의료 경영	-	-

[부록 5] 국내 교육과정(온라인 공개강좌) 세부주제 분석

영역	edX
1. 투자	- Stock and bonds - The CAPM and diversification
2. 저축-대출	-
3. 개인 재무관리	-
4. 경제학적 문제	- Pricing, Insurance & Ethics
5. 금융 개념	- Present value - Capital Budgeting
6. 금융서비스	-
7.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
8. 의료 체계	-
9. 의료 산업	- Clinical trials - Venture capital and New Business Models - Securitization
10. 의료 경영	- Healthcare analytics

[부록 6]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의분류에 관한 타당화 설문 결과



[부록 7] 경제·금융 교육과정 타당화 FGD의 질문 구성

분류	번호	질문 내용
1. 필요성	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교수법	2-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전달 방법은 어떠해야 합니까?
	2-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강의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겠습니까?
	2-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강의자는 어떤 사람이 적절하겠습니까?
3. 세부주제	3-1	설문에서 제시된 세부주제 중 기본의학교육 수준에 적합한 주제는 무엇이며 졸업후의학교육에 적합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부록 8]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강사 상세

강의명	이름	소속 및 직책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차주황	신한세무법인 대표이사
전공의를 위한 대출	서주원	NH농협은행 All 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송영미	서울대학교병원 보험심사팀 심사파트장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여일현	NH농협금융지주 농협손해보험 전문위원

[부록 9]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세부강의계획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1) - 자산관리의 이해와 필요성		
강사	김진웅 소장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할 수 있다. 2. 소득에 따른 미래 자산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적합한 자산관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자산관리의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자산관리의 구조 1) 소득과 소비 2)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2. 자산관리의 주요 개념 1) 이자율 - 복리, 72의 법칙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2) - 금융상품과 투자의 이해		
강사	김진웅 소장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을 말할 수 있다. 2. 소득에 따른 미래 자산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3. 자신에게 적합한 자산관리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금융투자의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금융상품의 종류와 특징 1) 예금/적금 (1) 높은 안정성, 초과수익 어려움 (2) 절세 수단 활용 2) 주식/펀드 (1) 중간 정도의 유동성 (2) 낮은 변동성 3) 부동산 (1) 낮은 유동성 (2) 레버리지 효과 2. 금융투자의 원칙 1) 장기투자 2) 분산투자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록 10]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세부강의계획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1)		
강사	차주황 세무사 (신한세무법인 대표이사)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말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연말정산의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연말정산의 개념 1) 소득세의 개념 2) 원천징수의 개념 2. 연말정산의 과정 1)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의 이해 2) 산출세액, 결정세액, 환급세액의 이해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2)		
강사	차주항 세무사 (신한세무법인 대표이사)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말할 수 있다. 2. 서울대학교병원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연말정산의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홈택스 시스템 소개 2. 서울대학교병원 연말정산 시스템 소개 3. 직장인 연말정산 예시 4. FAQ 1) 직장을 이직한 경우 2) 기부금 세액공제	1. 강의 2. 비대면 activity (직장인 연말정산 예시)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록 11] 전공의를 위한 대출 세부강의계획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대출 (1)		
강사	서주원 위원 (NH농협은행 All 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대출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말할 수 있다. 2.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대출의 활용법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대출의 개념 1) 원금, 이자, 만기의 개념 2. 대출과 관련된 규제사항 1) DSR, DTI 2) LTV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대출 (2)		
강사	서주원 위원 (NH농협은행 All 100자문센터 WM전문위원)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대출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말할 수 있다. 2. 대출의 종류와 상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우용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2022). 길벗.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대출의 활용법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대출의 종류 1) 신용대출 2) 담보대출 3) 전세자금대출 4) 정책자금대출 2. 대출의 상환 1) 만기일시상환 2) 원금균등분할상환 3) 원리금균등상환 3. FAQ 1) 대출상품의 예 2) 주거래은행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부록 12]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기본		
강사	김정회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건강보험수가제도의 결정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2. 지불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말할 수 있다. 3.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개념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김회창 등.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2021). 보문각.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전공의로서 지불보상제도 학습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건강보험수가제도 1) 의료기관의 수입과 건강보험수가 2) 보험자, 보험가입자, 의료공급자의 삼각모델 3) 건강보험수가의 결정구조 2. 지불제도 유형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수가제 3) 봉급제 4) 인두제 5) 총액예산제, 총액계약제 3. 행위별수가제의 구조 1) 행위별수가제의 역사 2) 상대가치점수의 개념과 산정방식 3) 환산지수의 개념과 산정방식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계획서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강사	송영미 파트장 (서울대학교병원 보험심사팀 심사파트장)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적용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2. 진료비 심사영수증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김회창 등.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2021). 보문각.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개요 소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관련 용어 정리 1) 진료비지불제도 2) 수가 3) 진료비 산정 유형코드 4) 본인부담률 2. 행위별수가제 예시 1) 사시 수술 3. 포괄수가제 예시 1) 백내장 수술	1. 강의 2. 비대면 activity - 안과 환자를 통해 보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비교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록 13]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세부강의계획

강의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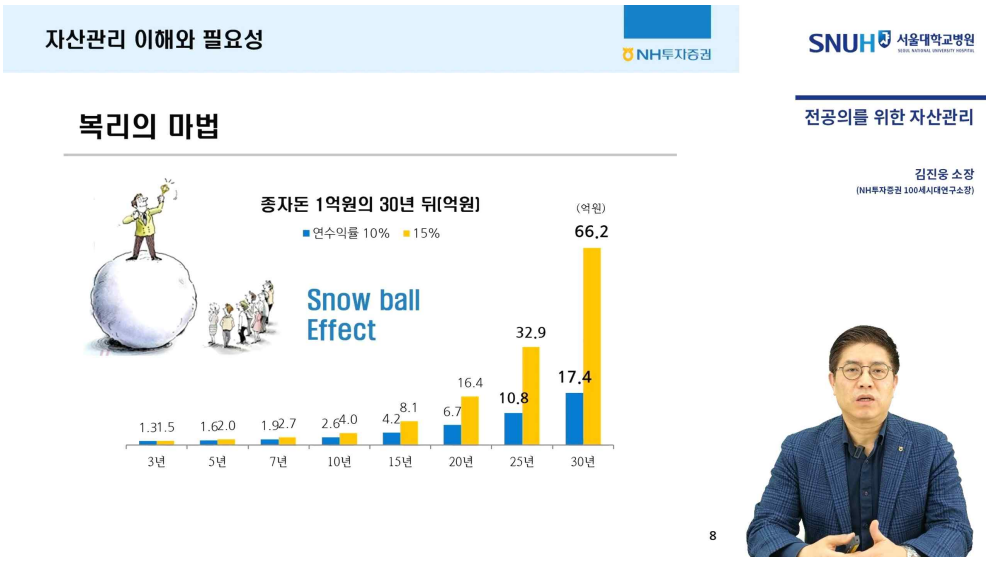
교육과정명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강의명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강사	여일현 위원 (NH농협금융지주 농협손해보험 전문위원)
담당교수	이승희
교육목표	1. 의사 개인으로서 건전한 경제생활을 추구하는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 2. 의료전문가로서 의료시스템의 경제학적 원칙과 적용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3. 임상의사로서 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경제금융 지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강의목표	1. 의료와 관련된 민영보험의 종류를 말할 수 있다. 2. 의료와 관련된 민영보험의 특징을 열거할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김용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상식 (2019). 원앤원북스. 2. 김종명. 의료 보험 절대로 들지마라 (2012). 이아소
수강생 준비 사항	-
평가	강의 후 설문조사

강의 진행 개요

구분	소요 시간	학습활동 내용	교수방법 (학습자료 및 도구)
도입	3분	1. 전공의로서 의료 관련 민영보험 학습 필요성 제시 2. 학습목표 제시	1. 강의
전개	15분	1. 보험의 특징과 필요성 1) 개인적 측면의 필요성 2) 직업적 측면의 필요성 2. 보험의 정의와 종류 1) 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3. 민영보험의 종류와 특징 1) 손해보험 2) 생명보험 3) 제3보험 4. 의료제공자의 역할과 책임	1. 강의
정리	2분	1. 요약 및 정리 2. 설문조사	1. 강의 2.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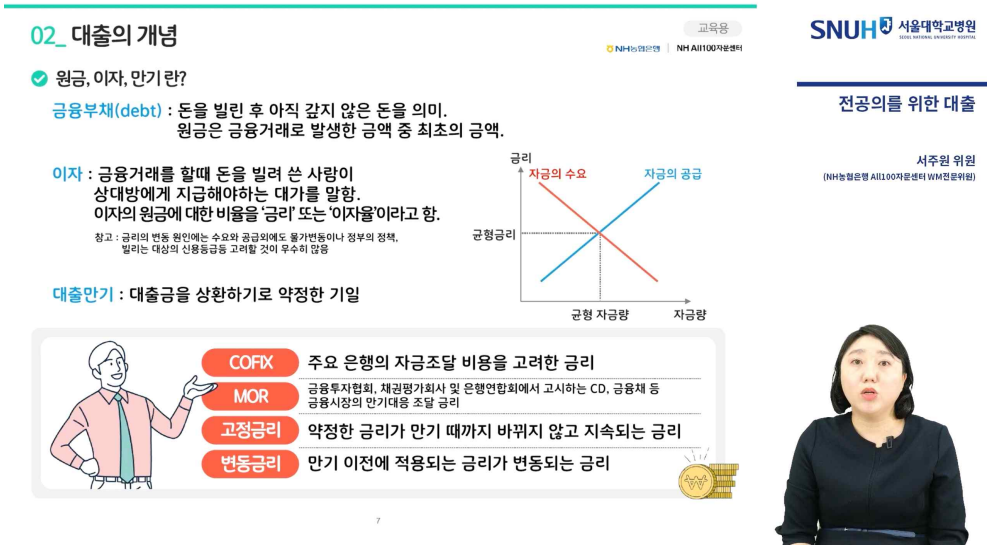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록 14] 전공의를 위한 자산관리 대표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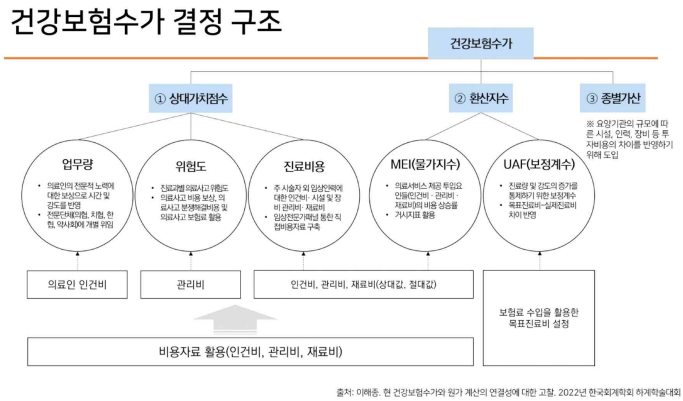


[부록 15] 전공의를 위한 연말정산 대표 사진

[부록 16] 전공의를 위한 대출 대표 사진



[부록 17]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1)



[부록 18]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대표 사진 (2)

Ⅰ. 관련 용어

03. 진료비산정 유형코드

구분			가격통제	구분	예시
급여	보험		가격통제 · 보험기준관리 O	보험수가의 본인담률에 따라	대부분 수가
	0원 수가	F		보험기준(대상 및 인정개수) 외	BST, 봉합사, Electrode, GAUZE 등
	선별급여 30%	선별D		보험수가의 30% 환자부담	
	선별급여 50%	선별A		보험수가의 50% 환자부담	
	선별급여 80%	선별B		보험수가의 80% 환자부담	
	선별급여 90%	선별E		보험수가의 90% 환자부담	
	전액본인부담	D		보험수가의 100% 환자부담	• 인정기준 외 100%(합법) : 알부민주, 국소지혈제 등 • 식약처 허가 및 기준 초과(임의) : IRB 승인 전 or 대상기준 외
비급여		S	X	관행수가를 환자가 100% 부담	성형수술, 1인실 병실료, 로봇수술료, 건강검진 등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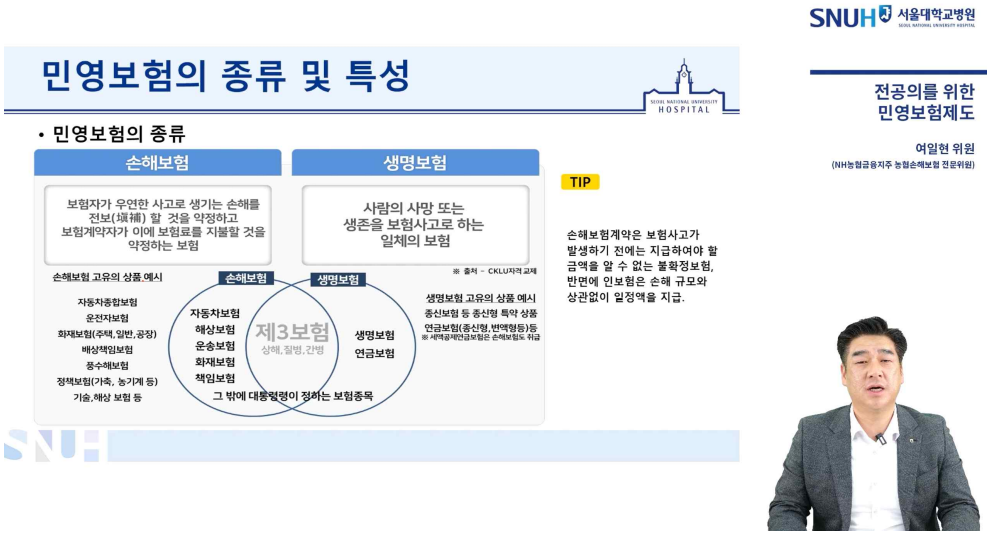
SNUH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전공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

수가제도의 사례와 적용

송영미 파트장
(서울대학교병원 보험심사팀 심사파트장)

[부록 19] 전공의를 위한 민영보험제도 대표 사진



[부록 20]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 평가 FGD의 질문 구성

분류	번호	질문 내용
1. 교육과정 평가	1-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지식수준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적절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전달 방식과 형태는 어떠하였습니까?
	1-5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세부 주제는 적절하였습니까?
2. 교육과정의 타당성	2-1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	전공의를 위한 경제·금융 교육과정은 필수 교육과정으로 시행되어야 합니까?
3. 발전방향	3-1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	향후 추가로 다루어져야 하는 세부주제로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3-3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Abstract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ealth Economics·Finance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Tae Hyun Kim
Medical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Human Systems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Do doctors have to know about economics and finance? While physicians interact with society through patients on individuals, professional, and systemic levels, they often remain indifferent to an important component of this interaction; economics and finance. However, the knowledge on economics and finance serves as a cornerstone for becoming an independent medical professional,

communicating with patients, working as a healthcare systems expert, and choosing a suitable career for onesel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preparing to work as an independent physicians in the future generally possess a low level of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The paucity of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vided in basic and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has been pointed out to be one of the reasons behind such phenomenon. Howeve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have a high demand for economics·finance education. Although there are a few rare cases of economic and financial education being offered in basic or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in other nations, these programs were mainly developed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knowledge of a select few individuals, rather than educational methodology. In Korea, no cases of such education has been confirmed, as well as a research on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of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Method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based on educational methodology and to implement and evaluate the curriculum.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six stages: development of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validation, finalization of the curriculum, pla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The methods utilized in each stage of the research included literature review, website search, survey, focus group discussion, and meetings.

Results

Through this study, a comprehensive economics·finance education spaning basic medical education and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was developed. Through surveys and focus group discussion, the educational objectives, competency, and specific topics were validated.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was designed to achieve two educational objectives: 'being capable of describing how to pursue a healthy personal economic life' and 'being capable of explaining the economic principles and its applications on the healthcare system.' In addition to these,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residents set an additional educational objective of 'being capable of applying economical·financial knowledge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patients as a clinical physician.' In both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medical students and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for residents, students were required to achieve three competencies on taking the curriculum: 'being able to recognize problems and risks in economic perspectives,' 'being able to describe the situation using economic terminology,' and 'being able to analyze the expected returns and effects of actions in an economic perspective.'

Among specific topics of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physicians, a pilot lecture series was conducted on five of the specific topics: 'Asset Management for Residents,' 'Loans for Residents,' 'Tax Settlements for Resident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for Residents,' and 'Private Insurance System for Residents.'

The lectures were recorded on video and distributed online, and evaluated through survey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d a higher than moderate level of inter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knowledge, and higher than moderate level of behavioral changes. Focus group discussion revealed an modest level of educational demand for the program, as well as an elevated interest in lectures related to 'how to pursue a healthy personal economic life.' This was evidenced by the higher level of interest in the survey and overall higher viewership. However, there were differing opinions on whether these lectures should be mandatory, with some in support and others against. Nevertheless,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 panel on the necessity of the entire education program.

Conclu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based on educational methodology. The program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may be expanded and utilized in medical education at each school and training hospital. This would help individual physicians to achieve financial well-being and thereby fostering a capable medical professional, enhance the social-economic understanding of physicians towards their patients, help develop an expert perspective on the medical system, and assist medical students and residents in career

selection. The diverse opinions on the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can also be further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s for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Furthermore, further research may be conducted to validate and evaluate an economics·finance education program for medical students in order to complete the comprehensive curriculum. In addition, another future research may be conducted to add complementary lectures to fully attain the educational objective of ‘applying economical·financial knowledge to underst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patients as a clinical physician.’

Keywords : Economical·Financial literacy, Economics·Finance education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um evaluation, Medical student, Resident

Student Number : 2021-29535